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8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 382 호



법석 조대 마하 고사난다 캄보디아불교 최고지도자



"오직 자비심과 올바른 집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구제救濟와 행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비행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보살행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를 무명에서 광명으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8 · 9면

북한산도로 조기 해결될 전망
노선검토위 구성방법 등 논의

수경스님, 추 건교부차관 등 만나 철마선원 철거중지 등 3개항 요구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가 노선검토위 구성 등 불교계 요구가 일정정도 수렴되면서 빠른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마선원 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의 집행시한(19일)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경스님(철마선원장), 현응스님(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건설교통부 추병직 차관, 서울고속도로(주) 최병권사장이 10일 시내 모처에서 만나 노선검토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수경스님은 △연말까지 관통도로 건설중지 △철마선원 철거중지 △노선검토위 구성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차관과 서울고속도로(주) 최병권사장은 철마선원 강제철거 중지, 노선검토위 구성에 대한 불교계 요구에 공감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관통도로 건설중지에 부분에서는 "12월까지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1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회의 이후 기자와 만난 현응스님은 "노선검토위원회 구성, 공사중단 기간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며 "불교계에서 합의를 통한 해결과 국민의견수렴 결과 승복을 전제로 하여 대폭 양보한 3개항을 제시한 만큼 정부와 시공사측이 검토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속도로(주) 영업팀 이영선 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미리 속단할 수 없다"며 "불교계와 정부, 시공사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의 협상 중 큰 걸림돌은 건설중지 기간 문제. 불교계에서는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과를 차기정부에 넘기자는 것이지만 건교부와 서울고속도로(주)는 기간을 단축, 빠른 시일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왼쪽에서 두번째)와 소속 의원들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본사주지연합회장 법장스님이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노무현 후보(왼쪽에서 두번째)가 경청하고 있다.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인도차원 대북 쌀 지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등 7대 종교 대표들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북 쌀지원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7대 종교 대표들은 "정치적 견해나 경제적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고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천명했다.



이번 7대 종교대표들의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는 지난달 발생한 서해교전으로 국민들의 언짢은 감정과 불안이 채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과 정부에 중단된 대북지원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7대종교 대표들이 제기한 대북 쌀 지원문제는 동포들이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북한난민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7대 종교 대표들은 이번 기회에 대북 쌀 지원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민족통일을 염두해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 동안 대북지원을 놓고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측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는 대북 지원론에 "북한 체제만 연장시켜 주는 퍼주기"라는 상충논리는 한국사회 편을 가르는 사회적 화두였다. 이 부분을 종교계가 나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7대 종교대표들의 입장표명은 의미가 있다.

올해 막사이사이상 수상자인 법륜스님이 얘기했듯 2천500만 북한주민중 약 300만명 정도가 식량난으로 인해 사망한 상황에서 쌀 지원은 오직 동포애 차원에서 순수하게 접근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남북관계는 개인과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족의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고 남과 북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새로운 전기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됐으면 한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원찰**

1. 신도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나가는 원찰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원찰이 있다면 몇 곳입니까?
①1곳 ②2곳 ③3곳 ④4곳 이상

설문 참여: 8월 1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3호 9면에 실습니다.

정치권 '북한산 공사' 연기 긍정적

노무현 후보, 특대위 구성 · 최고위원회의 상정
이회창 후보, 관련예산 삭감 · 법개정 등 검토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 민주당이 정세균의원(건교위 소속) 등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산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도 북한산 철마선원 철거 저지 및 공사 연기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덕사 법장, 해인사 세민, 조계사 지홍, 송광사 현봉, 통도사 현문 스님 등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스님 10명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응스님 등은 9일과 10일 잇달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및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회동을 갖고 북한산 관통도로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0일 회동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임채정, 조성준, 정세균, 이미경 의원으로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북한산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일 조선호텔에서의 간담회에서 이회창 후보는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불교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예산 삭감, 법개정 등을 통해 북한산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에게 △연말까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중지 △공사중지 기간 동안 노선검토위원회 구성 △철마선원 강제철거 중지 등 요구문을 전달했다.

강유신 기자

북대표 참가 첫 서울 8 · 15법회

16일 조계사, 심상진 서기장 등 참가

분단이후 남한지역에서 처음으로 심상진 서기장등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들이 참가하는 8 · 15남북합동법회가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조국광복 57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조계사에서 종단협 회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심상진 서기장등 조선불교도연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합동법회는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 대표단의 타종을 시작으로 삼귀의 축원, 대회사, 정대스님 법어, 남북 불자들에게 전하는 통일메시지 낭독, 남북 공동발원문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여름휴가 관계로 이번주 16면 발행 따라서 교리 등 일부 지면 쉽니다.

불교명상학과 개설

서울불교대학원대학

9월 개교하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총장 목정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명상학과를 개설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현재 개설돼 있는 '불교학과'를 '불교명상학과'로 바꾸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명상학과는 불교교학 전공과 명상치료 전공으로 나눠지게 되며 불교교학 전공자는 포교사 자격증을, 명상치료전공자는 명상치료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02-808-6582.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광복 57돌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광복 57돌을 맞이하여 남북의 불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봉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북측의 조선불교도련맹 대표들이
조계사를 방문하여 합동법회를 함께 봉행할 예정입니다.

■ 일 시
불기2546(2002)년 8월 16일 (금) 오후 2시 30분
■ 장 소
조계사 대웅전
■ 주 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문의처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02-720-0531)
한국불교종단협의회(02-732-4885)

공 동 발 원 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겨레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광복만세를 부르던 때로부터 분단곱해가 되는 역사의 날 8.15를 맞으며 남과 북의 전체 사부대중들은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동시법회를 열고 통일의 한마음 기울여 부처님 전에 삼가 서원을 올립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6.15공동선언의 탄생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온 겨레의 가슴에 맺힌 아픔의 응어리를 풀어주며 어서오라 통일의 그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 모두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북의 각계층 대표들이 남녘에 내려와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여 통일의 염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통일의 앞길을 밝힌 6.15 공동선언이 이렇게 우리 겨레, 우리 불자 모두를 통일의 한길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틀림없이 실천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고 부정하면 그것은 곧 대결과 분열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막아선다해도 하나로 뭉쳐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고수와 그 실천행에 용맹정진하겠습니다.

통일의 주인은 우리 겨레 우리 불자 모두입니다. 그 어떤 외세도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현실참여행에 떨쳐 나서겠습니다.

통일의 과정은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간의 상생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통일이 남과 북에 다같이 이롭고 함께 공존공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우리 겨레, 우리 불자 모두는 민족도, 핏줄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하나로서 헤어져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하나의 동포형제들이며 이 나라, 이 땅도 하나의 3천리 조국강토입니다.

우리들은 둘이 아닌 하나, 통일조국을 안아오는 이 길이 아무리 어렵고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통일을 가로막는 난관이 아무리 많아도 통일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땅우에 반드시 하나의 통일조국, 지상정토를 세우고야 말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언제나 불은을 내려 주십시요.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그대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불사 하나하나가 모두 통일에 기여하는 선업이 되도록 가호를 내려주십시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6(2002)년 8월 15일

'광복 57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동시법회' 참가 사부대중

※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8월 15일 철석 법회 시 통일기원 타종(5타)과 함께 남북공동발원문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설

불교 정보화의 길을 밝힌다

불교계 사찰과 단체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를 조사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화 실태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 간 실시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으로, 정보화에 대한 불교계의 적응 지수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돌이켜 보면, 불교계는 여러 분야에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성과를 구체적 지수로 밝혀내는 일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보화분야에서는 막연히 '소극적이다' '뒤떨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선에서 평가의 잣대를 거두기 일쑤였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사업에서도 불교계는 소외되어 왔었다. 때문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등 언론 3사가 공동으로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심화된 정보화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초석 다지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지 높고 할 일 많아

보고서는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발전을 담보할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 교계 안팎의 언론들이 이미 보도한 대로 현황은 미흡하지만 정보화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총괄적인 결론이다. 이는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빠른 템포로 사회 변화를 따라잡겠다는 의지가 충만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불교계가 정보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역설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불교 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불교계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시급하다. 단순한 사무자동화 차원의 컴퓨터 활용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적응이라 할 수 없다. 인터넷 기반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쌍방향 교류와 업무처리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 질 때 정보화의 기틀이 다져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계의 정보화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다음은 인프라의 구축이다.

일부 종단은 이미 종단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종단 차원을 넘어 불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가 내포하는 모든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것이 유용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다. 불교는 무한한 지적 자산과 문화, 관광 자원을 안고 있다. 이들을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관련 콘텐츠 개발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지원 필요

과연 이같은 대형 사업을 누가 추진할 수 있겠는가? 불교계의 여러 종단과 단체들이 '불교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해 거시적이고 공익적인 불교정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이 협의회의 구성과 향후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간 불교계가 'IT 강국'이란 슬로건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을 생각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더욱 요망된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불교계의 정보화를 위한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불교계의 정보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삽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교육부·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 선정

'조선불교통사' 등 5건 포함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5일 기초학문 육성 지원계획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201과제 등 모두 766개 연구 과제에 7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선정된 불교관련 과제는 5개로 국학 고전 연구분야의 △〈조선불교통사〉 △〈보조전서〉 △〈선문염송·염송설화회본〉의 번역과 주석 작업, 국내외 지역연구 분야의 △파키스탄 간다라의 고대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 △서일본 지역 한국 불상, 불화 작품의 조사연구 및 전산화 작업이 앞으로 2~3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의 기초학문 육성 지원 사업에 이들 5개 과제가 선정됨으로써 불교계는 불교학 연구의 기반 확충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조선불교통사〉와 〈보조전서〉, 〈선문염송…〉의 번역과 주석 작업은 이들 문헌이 한국 불교사와 불교사상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면서도 재정적 뒷받침 등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부분 번역에 머물러오던 것들이다.

1918년 출판된 〈조선불교통사〉(이능화 편집, 최남선 교열)는 한국 불교사 연구의 필수적 자료로 한국 불교사와 관련된 종합적 자료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연구 책임을 맡아 2년간 원문 번역과 주석, 각 용어와 인물, 중요 개념 등에 대한 색인 정리, 상·중·하 각 권에 대한 해제 작업을 벌인다.

보조사상연구원이 2년간 진행할 〈보조전서〉(책임연구원 계환 스님) 국역 사업도 429쪽에 이르는 전체번역은 처음이다. 번역과 색인 작업뿐 아니라 지눌에 대한 연구 목록을 정리하고 각 편마다 해제 논문 수록할 예정이다.

한국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본으로 꼽히는 〈선문염송〉과 〈선문염송설화회〉의 회본(會本)에 대한 한글 역주 작업은 이진오(부산대) 교수팀이 맡아 3년간 진행한다.

이밖에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국내 최초로 한국 불교 미술의 원류인 간다라 지역의 불상과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현지에서 벌인다.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이번 선정은 기초학문 분야에서 불교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불교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종무실장 윤청하씨



정부는 2일 문화관광부 종무실장(1급)에 윤청하(56·사진) 前 문화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전남 해남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윤 종무실장은 1980년 주미 대사관 공보관을 시작으로 수단, 캐나다 홍콩대사관을 거쳐 98년 문화부 종무실 종무관, 예술국장, 문화정책국장을 지냈다.

한편 윤청하 종무실장은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인사차 예방하고 "원만한 종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진각종, 위덕대 지정 추진

국방부·조계종에 승인요청·재청원서 발송

진각종이 위덕대학교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진각종은 위덕대학교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교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7월말 조계종 포교원에 재청원서를 발송한데 이어, 8월9일 국방부 장관 앞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재청원서 및 승인요청 서신에서 진각종은 "조계종의 의견을 수렴해 군승에 한해서는 조계종의 의식을 따르도록 했으며, 논산 입소 대대법당을 신축해 기부하는 등 군불교 발전에도 기여해왔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각종은 96년 5월 국방부에 '위덕대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지정 청원'을 제출한 이후 지난해 재청원서를 냈었으며, 조계종 포교원과 수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조계종은 교리와 의식이 다르고, 군불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반대해왔고, 여전히 이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진각종 한영규 포교연구원(전 군법사)은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진각종의 요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천태종 금강대학교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대한법화종 종정 해산대종사 추대



대한불교 법화종은 6일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제7대 종정 해산대종사(사진)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단지도자들은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서원했다. 해산스님은 법화종 창종과 주요 종책 제시 등 종단 발전에 기여해 왔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임시 종회 22개 종법 제·개정

태고종은 5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8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전교사법, 법계법 등 22개 종법을 제·개정함으로써 조직재정비와 종단 개혁에 나섰다.

종회의원 52명중 37명이 참석한 이번 종회에서는 지난해 종단사태로 처리하지 못한 2000년도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2일 열기로 한 태고종 원로회의는 원로의원들의 세납을 70세 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성이 연기됐다.

이경숙 기자

미타암 200m지점 고속철 관통

용문스님등 "엄연한 위법…변경허가 무효화"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을 둘러싼 종교, 시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구간 중 일부가 전통사찰보존지구인 미타암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을 지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속철공단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낸 미타암 통과 구간에 대해, 7월 25일 이미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 미타암 주지 용문스님과 내원사 산감 지율스님 등은 "총무원장이나 미타암 주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상변경 허가는 엄연한 위법"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기자

조계종 포교원·남양주 보광사

주말수련회 공동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남양주 보광사(주지 선우)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주말 수련회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숲과 태극권 그리고 참나 돌아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오는 30일부터 9월1일까지 2박3일(1박2일도 가능)간 열린다.

포교연구실은 이번 보광사 수련법회 실시를 시작으로 주말수련회 운영사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등 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다. (031)594-1316

김재경 기자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후원회 모집안내

자비간병인 교유대학은 2002년 8월 5일(2개월 과정)부터 개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포교 활동과 지역사회복지·보건을 위해 전문간병인 양성교육기관으로, 본 이념에 뜻을 같이 하고자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후원회 법보시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 006-05-003306-1
▸조흥은행 802-04-483739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531 ●전화 : 053-255-7573, 7583
대한불교조계종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장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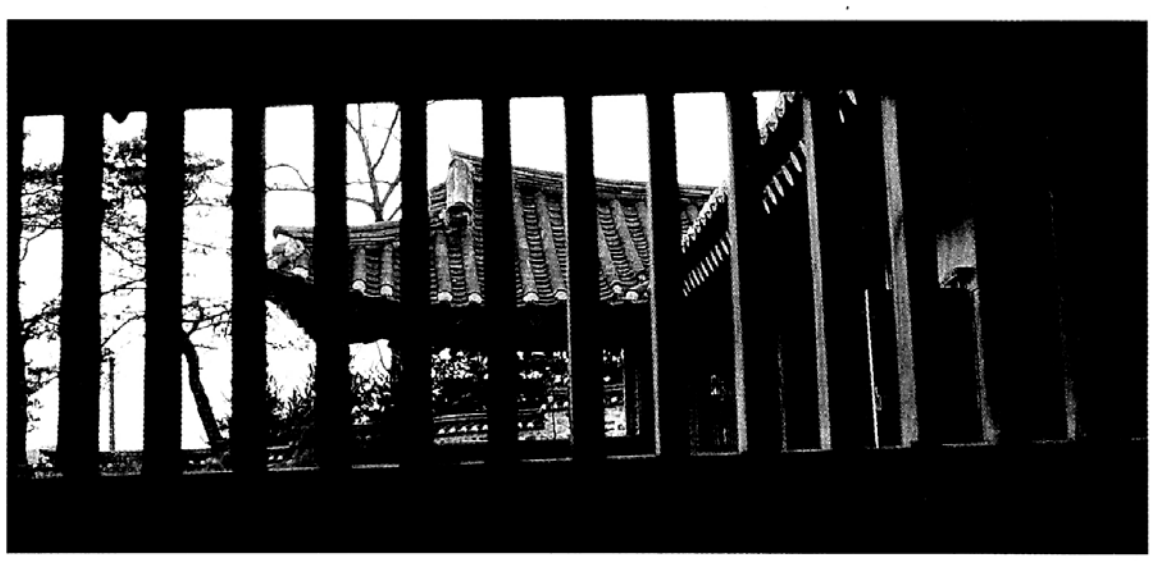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남을 꾸짖을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라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경봉 큰스님, 70여 년간의 성찰과 깨달음의 일기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경봉 큰스님의 일기, 화두, 시와 어울린 아름다운 사진은 숨한 번민, 부질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안겨준다.

스님의 일기에는 제방(諸方)의 눈푸른 납자(衲子), 선지식들과 주고받은 법담과 감회들이 격외(格外)의 시로써 장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_법정

조문객이 10만이 넘고 장례행렬이 2km나 이어진 불교계의 전설 경봉 스님의 일기는 수행자답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다짐이 많다.
_조선일보

80여 편의 시, 20여 개의 화두, 주고받은 법담, 자연친화적인 90여 컷의 사진과 함께 빛을 발하는 명구들……
내밀하고 그윽한 목소리를 들려준다._스포츠서울



경봉큰스님

15세에 출가 평생 통도사에서 선풍(禪風)을 드날렸다. 1953년부터 국락암에 조실(祖室)로 주석하면서 이곳은 전국의 선승(禪僧)들이 동경하는 수행장소로 미움받다. 1973년 1월 여든을 넘긴 나이에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법회를 시작했고 매번 수천의 불자(佛子)들이 그의 사자후(獅子吼)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로 입적 20주년을 맞이하였다.

화분 하나, 액자 하나로 가족의 운명을바꿀 수 있다?
잘 되는 집안은 뭐가 다른 걸까

남자의 성공을 부르는 기 인테리어
신혼을 위한 기 인테리어
질병을 물리치는 기 인테리어
아름답고 넓싼해지는 기 인테리어

이성준 지음 | 올컬러 | 12,000원



돈이 모이는 집,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금전운이 좋아하는 집은 이런 집
이런 옷차림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장식소품이 금전운을 부른다
이런 가구배치가 돈을 부른다

이성준 지음 | 올컬러 | 13,000원

TEL 953-0304 FAX 953-0306

정보화세상 불교계가 선도해야

사찰운영 주체들 교육 포괄시스템 필요

불교전체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보급도



홍파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관음종 총무원장



불교정보화
특별기고



최종욱
상명대 교수
정보통신학부

이번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통계들은 불교계의 정보화, 특히 인터넷 사용 수준이 우려할 정도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불교 사찰의 주요 임무가 사찰의 운영이나 포교 보다는 정진과 수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할 때 정보화가 너무 뒤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은 41.7%로 한국 일반 가정의 보급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2월 현재 전국에 보급된 PC는 1천 8백만대이고 이중 1천 1백만대가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수를 1천 2백 95만 가구로 본다면 88%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사찰의 홈페이지 운영 비율은 13.3%로 대단히 낮은 수치다. 향후 불교를 접하고 불자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 잠재 불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찰의 홈페이지 운영 미숙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종단이나 교구 본사에서 말사의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을 도와주는 거시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실습을 통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볼 정도의 쉬운 기술이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찰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찰의 PC 보급률과 홈페이지 운영 통계는 정보화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정보화는 사무 자동화를 거쳐 생산자동화로,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이버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봉급계산이나 장부정리, 고객 DB구축과 같은 단순한 사무 자동화기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차츰 경영전반의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서 전사적관리(ERP)와 지식관리 시스템(KMS)로 까지 발전해왔다. 대부분의 생산 작업을 인력에 의존하던 제조업계에서도 이제는 생산 공정의 대부분을 로봇과 컴퓨터 제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인 공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의 보급으로 컴퓨터는 단순히 인력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의견을 나누어가는 커뮤니티 형성과 발전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찰들은 컴퓨터를 아직은 기존의 수작업을 대신하는 '사무 자동화 기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제 불교사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불교 사찰의 역할이 일반 대중을 지도하고 교화하는 커뮤니티의 리더역인가 아니면 개인 수양을 위해 단순히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 인터넷을 사용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가상 공간에서 대중들을 지도하고 교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중들의 만남을 주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생활화할 잠재 대중들의 대부분이 가상공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커뮤니티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불자들을 유치하고 교화하는 사찰과 전통적인 대면(對面) 접촉을 통해 불자들을 접촉하는 사찰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차피 정보화에 뒤떨어진 우리나라 사찰들끼리 포교 경쟁을 할 때는 이러한 역할 구분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신교나 천주교와 같은 다른 종교 단체들과의 경쟁에서는 가뜩이나 뒤떨어진 정보화가 더 엄청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도들의 사생활 고민을 사이버 상에서 들어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제공한다면 일반인들에 대한 종교적 포교력이나 흡인력은 대면 포교보다는 크다고 생각된다.

사찰들 인터넷활용 리더역을

정보전쟁서 다른 종교단체들에 밀리면

일반인 포교·흡인력 크게 뒤질 가능성

정보화란 말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다.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주는 편리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의 정보화 시스템은 기업이윤 창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육, 문화, 종교 등 어느 분야도 이 거대한 흐름을 역행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세상의 흐름이 불교와는 무관한 것일 수는 없다. 불교는 성불이란 궁극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신세계에 대한 측면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종교로서의 가르침이 배제될 수는 없다. 생활의 수단 내지는 도구에 대한 감각이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정신은 언제나 사회적 정신문화를 앞서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자리에서 우주만물의 변화가 거론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보화 사회라는 패턴 역시 불교와 괴리될 수 없다. 오히려 불교가 더 적극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장단점들을 검토해 바른 정보화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불교계가 정보화 사회에 소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계 언론사가 공동으로 불교정보화실태조사를 한 이유도 바로 불교의 일을 어떻게 해야 불교가 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민족종교로서의 자리를 지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여러 종단이 나름대로 정보화 전략을 세우고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들이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거나 미래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 없이 단발성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시행착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실태조사의 보고서는 불교계의 정보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바르게 실행되어 전법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대중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왔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주최한 단체들이 불교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연구와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반길 만하다. 이제 불교계는 정보화 분야에 있어 공동이익을 담보하는 공익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 사업의 방안은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겠지만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과 포교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개별 사찰과 포교당, 소속 단체들이 컴퓨터를 쓸 줄 모르면 그 생각은 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육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다 좋은 기종의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종단이나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구매 형식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컴퓨터의 보급률이 절반 수준이란 심각성을 먼저 극복하고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사찰 운영 주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정도까지의 사업만 성공해도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반을 토대로 종단별 혹은 불교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콘텐츠들이 개발 보급된다면 불교는 사회의 정신과 기술적 흐름을 선도해 가며 인간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든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가 발전의 축을 형성하리라고 믿는다. 물론 그 축에서 벗어나고 싶은 종단이나 단체는 없을 것이다. 이제 불교계 전체가 정보화 사회가 주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작업에 불교계 모든 구성원이 협력할 때다.

"수행·전법원칙 발전안 수립"

대둔사 제 19대 주지 추대된 도형 스님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둔사는 5일 보현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제19대 주지에 도형스님(대둔사 강주)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도형스님은 60년 천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6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범어사 중강, 강주 등을 역임했다.

◈만장일치로 추대됐는데 소감은.

"그동안 대둔사는 조실 천운스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닦아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남해안 불교의 중흥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다. 불조의 혜명을 잇고 대중을 시봉하는 마음으로 소임에 임하겠다."

◈대둔사 발전을 위한 구상은.

"수행과 전법은 사찰운영의 기본축이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행·교육·문화·포교·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또한 서산대사 이래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배출한 전통을 계승, 선교를 아우른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포교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대둔사는 최근 지역포교에 나름대로 전념하여 교구에 3개의 불교대학을 설립하는 등 지역기반을 회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교의 새로운 형태로써 주말수련회인 '새벽숲길'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한단계 발전시켜 농촌과 도서지역에 맞는 교육·문화·복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대둔사는 조선불교연구원을 두고 조선불교 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연구계획이 있다면.

"현재는 자료 축적 단계에 있으며, 위촉된 연구위원들이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올해 조선불교 연구총서 제1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조선불교연구원은 '승유억불'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된 조선시대 사상관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교구본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구상은.

선·교 아우른 도량… 강원 활성화도

"조계종은 교구 개념이 약하다. 본사가 교구지역의 수행과 포교, 신행, 사회관계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단위 사찰의 개념으로 본사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은 대둔사를 중심으로 교구말사의 모든 종교적 기능을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련 전문도량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다."

도형스님은 대중의 화합과 화목, 합심을 강조하고, "대중이 하나된 마음으로 수행과 전법,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고, 대둔사를 선·교 중심도량, 수련전문도량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 대둔사= 박봉영 기자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봉 대한불교 총화종 현해탄 수륙대재 및 일본 성지순례 행

귀의 삼보하옵고
녹음이 무성한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본종대덕 큰스님과 종도스님께서는 법체 강녕하시며 아울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두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총화종에서는 전 종도와 전국 불자님을 모시고 현해탄 선상에서 선망 부모와 세계 제 2차 대전당시 산화하신 유주 무주 고혼천도 수륙대재 및 일본국 성지순례를 9월 28일(3박 4일간) 봉행키로 하였습니다.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의 극락 정토왕생과 누겁의 업장소멸을 기원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2년 9월 28일 – 10월 1일(3박 4일)
- 신청마감 : 8월 31일까지(1,000명 선착순)
- 참가비 : 50만원(1인당)
- 접수처 : 총화종총무원 031-592-8891 및 전국교구종무원
  (주)주원항공 02) 733-29999
- 이용배편 : 카멜리아 ● 총화종인터넷 : www.chong Hwa Jong.org

◈ 여권 발급신청 : 시, 군, 읍, 면 동에서 신청하십시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운전면허증
- 칼라사진(여권용) 2매(사진뒤에 본적 및 전화기재)

◈ 일본 비자서류(비자신청비 : 10,000원)
– 공통서류
- 여권, 주민등록등본1통 ●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 사진1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사업가가 아닌 분은 보증인 1명 선정)

– 직장관계서류
- 제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 1통
-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60세 이상자는 여권,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

일 자	도시명	교통편	시 간	주 요 행 사 일 정
제1일 9/28(토)	부 산	카멜리아	15:30 17:30 18:00	부산중앙동 국제 여객부두 1층 집결, 승선수속완료 석식, 부산항출발 – 일본 후쿠오카 향발 수륙공 영가천도대재
제2일 9/29(일)	후쿠오카 구마모도 아소,뱃부	전용버스	08:40 전 일 20:00	선내조식후 하선, 후쿠오카항 도착 구마모도로 이동 아소산 분화구 관광후 뱃부로 이동 호텔투숙(온천욕) HOTEL : 스기노이 특급호텔
제3일 9/30(월)	뱃 부 후쿠오카	전용버스 카멜리아	전 일 17:00 19:00	호텔조식후 아생동물원, 지옥온천순례, 남장원 향발 남장원 방문후 후쿠오카 부도로 향발, 선내식사 부산항발 중 선내에서 회향법회
제4일 10/1(화)	부 산		08:40 09:30	기상후 선내조식, 부산항 입국 지정된 전용버스에 승차, 각 사찰로 향발

大韓佛教 總和宗 총무원장 전남정 합장

일주문



평불협 회원과 수계법회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은 17일 영천 은해사에서 평불협 회원들과 함께 수계법회 및 강연회를 연다.



정토신문 대표이사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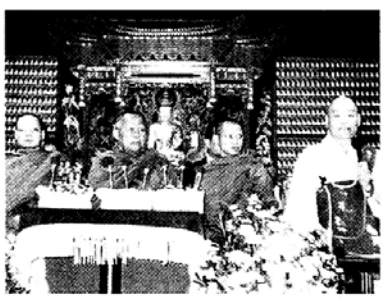
시몽 서귀포 법화사 주지는 7월 30일 열린 정토신문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 편집인에 선임됐다.



참나찾기 수련대회 개최

도각 참나찾기청소년지도자협회 이사장은 9~11일 영월 법흥사 등지에서 제17회 참나찾기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태국 담와라라자 스님 초청
금강선원, 수계대법회 봉행



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한정섭)은 태국의 고승 '담와라라자' (왓보원 사원 장로, 붓다대학 이사장 ·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스님을 초청,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금강선원은 담와라라자 스님을 모신 가운데 3일 서울 홍제포교원에서 수계의식을, 4일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한국불교 통신대학 졸업식' 및 수계대법회를 가졌다. 이어 5일에는 의정부 불교포교원 초청 대법회에서 '친견 법회'를 개최했다.

위안부 할머니 치매요양원 건립 추진

역사관 개관 4돌 맞은 '나눔의 집' 원장 능광 스님



"지난 4년간 세계 최초의 인권박물관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14일로 역사관 개관 4주년을 맞는 나눔의 집 원장 능광 스님(사진)은 위안부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 또한 개관 4주년을 맞아 상시적으로 위급 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갖춤으로써 할머니들이 안심하고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500평 규모… 간병 · 입원문제 해결 기대

"현재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에게 거주의 의미만 지닐 뿐 치료의 의미가 희박합니다. 따라서 생활관 뒤쪽에 전문치매요양원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여 평을 매입하여 건평 500평 정도의 2층 건물에 6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면, 할머니들이 타 병원 입원 시 나타날 수 있는 간병문제, 입원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나눔의 집에서는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지 매입과 건설비 등 총 15억 경비 중 소설가 공지영씨가 기탁한 5천만 원과 뜻있는 후원자들로 인해 현재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 정부에서는 나눔의 집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인권문제입니다. 교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능광스님은 개관 4주년을 맞아 역사관 자문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14일 오후 7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년부터 할머니들을 위해 시작한 '미술심리치료'에 나온 그림들을 전시할 계획이다.(031)768-0064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전청봉(왼쪽에서 세번째), 이언희(첫번째) 부부 등 보림회 회원들이 열대야를 아랑곳 않고 정진에 몰두하는 모습.

보림회, 7일 철야정진 30년째

의사 · 공무원 등 120명 참선 일상화

"너와 내가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무엇이며 듣는 자는 구엇인가?" (故 백봉 거사의 보림삼관(寶林三關))

1일 오후 8시 서울 정릉 산자락에 위치한 보림선원 선방. 20여명의 재가자들이 故 백봉 김기추 거사의 육성테이프 법문을 1시간 가량 들은 후 입정에 들었다. 보림선원 회주 묵산 스님의 지도하이 참선정진은 새벽 4시까지 계속됐다. 30대 중반부터 70세의 구인회 거사에 이르기까지 50분 정진, 10분 휴식으로 진행된 좌선의 깊은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백봉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회장 이수열, www.borim.co.kr)가 한 해도 쉬지 않고 여름 및 겨울 휴가에 맞춰 실시해 온 일주일 철야용맹정진은 올해가 제 57회로 30년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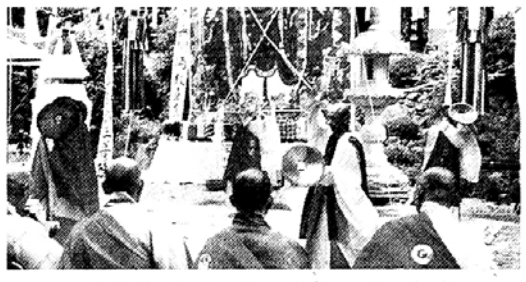
산청(본원) 지리산 보림선원과 부산 화엄사, 정릉 보림사에서 주말을 이용해 각각 정진하며 백봉 거사의 거사풍(居士風)을 전하고 있는 보림회원들은 모두 120여명. 의사, 공무원, 어학원장,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회원들은 일 속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 활구참선을 일상화 해, 지견이 열린 회원만도 10여명에 이른다. 7월 31일부터 6일까지 철야정진의 입승역할을 한 전청봉(51)총무는 "철야정진을 해보면 정신이 더욱 맑아져 일상 속에서도 화두를 챙길 수 있다"며, 젊은 불자들의 주말 철야정진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02)914-618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천태종, 니르바나 자원봉사자 교육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운덕)은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삼광사에서 '제2회 니르바나 자원봉사자' 교육을 가졌다. 3일간 총 13시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호스피스 기본교육과정에서는 △호스피스 개요 및 자원봉사자 역할 △임종환자 간호법 △장례문화 강의 △암성통증 이해와 치료 등이 교육됐다.



영산작법보존회 연수교육 실시

태고종 완주 봉서사(주지 법성)는 7월 19일~28일 50여명의 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영산작법 보존회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9일 동안의 영산작법 연수교육이 끝난 28일에는 영산작법 기능보유자인 일암스님(실상사)과 석정스님(극락암) 등이 직접 영산작법을 100여 사부대중에게 선보였다.



호국광불사 법당개원 · 점안법회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연천 호국광불사는 7월 28일 법당 개원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광불사를 지원하고 있는 법조스님(연천 능혜사)과 최우진 군불교진흥회 부회장, 윤일영 사단장 등 150여명이 등참했다. 50평 규모의 호국광불사는 포병연대 불자장병들의 신행공간으로 제공된다.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 · 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오는 병상증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co.kr(com) 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안 내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교 육 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솔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전업주부아닌 경우)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 H · 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는 분은 제외

실 버 타 운 입 주 안 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설안내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대시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련실, 바둑 게이트볼, 삼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 산책로

5.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1인	50,000,000	500,000
	1실2인	50,000,000	900,000

※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 락 처
02)743-0294, 011)9781-7301 Fax 02)747-4866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실버타운

전국 육임(六壬) 강의 안내

오행(五行)하는 사람치고 을·기·임(乙·奇·壬)이란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천문(天文)은 太乙, 지리((地理)는 奇門, 인사(人事)는 六壬이라는 것이지요.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육임을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에 미치지 못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게 됩니다. 육임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 같은 것입니다.

한국 육임학회에서는 이 좋은 육임을 전국적으로 개강(開講)시켜 방방곡곡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여러분에게 육임의 진수를 알려드리고자 전국 주요도시에 「**육임학당**」을 개설합니다.
아래 장소를 보시고 편리한 곳을 택하여 육임에 입문하십시오. **법력과 신명**과 도력에 있어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육임학당 「효사숙」	제3기	02-998-8683	육임학당 「인천숙」	제1기	011-729-6011
육임학당 「일경숙」	제1기	02-2203-4805	육임학당 「청주숙」	제1기	011-492-2376
육임학당 「복경숙」	제1기	02-3446-4118	육임학당 「광주숙」	제1기	011-9606-7090
육임학당 「부산숙」	제1기	011-883-8347	육임학당 「원주숙」	제1기	017-377-7005
육임학당 「대구숙」	제1기	016-580-6654	육임학당 「대전숙」	제1기	016-445-4580
육임학당 「전주숙」	제1기	011-650-8835	육임학당 「시흥숙」	제1기	011-326-8374
육임학당 「수원숙」	제1기	017-753-1592	육임학당 「제주숙」	제1기	064-743-3703

■ 개 강 : 2002년 9월 6일 금요일(효사숙 기준)
■ 시 간 : 매주 1회 4시간(각 학당별로 일시가 정해짐) 13주 52시간
■ 교 재 : 효사육임강의록
■ 비 용 : 일백오십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카드결제 됨

한 국 육 임 학 회

육임학당 **효 사 숙**

할인전문천역자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원(휴대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원(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 300,000원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28개) 900,000원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8월-용맹정진의 달
· 해태심의 극복
· 날마다 발심하기
· 정진의 방편
· 쉼없는 수행

날마다 발심하기



◇불자들은 나태한 일상을 벗어나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발심한다. 사진은 봉은사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

게으른 습관 버리기 … 발심의 기본
매일 발심·정진 … 평안·자신 되찾아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명원씨(38세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는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연초에 불었던 금연 열풍이 시들해지고, 담배 판매량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

서씨도 올초 건강도 챙기고, 불자로서 수행도 열심히 하기 위해 금연과 매일 아침 108배를 자신과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잦은 출장과 야간 근무로 남들처럼 일요법회나 주말수련회에 참석하기 힘든 서씨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108배는 처음 한 달 동안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몸과 다음이 맑아지니, 담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두 달째에 접어들면서부터 하루 이틀 거르는 날이 생기더니, 회사일로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담배를 입에 대게 되었고, 108배 또한 언제 그만두었는지조차 모를 정도가 되었다.

"뉴스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구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언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놓아 버렸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지 너무 창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서씨.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또 못하면 그 다음날 다시 하고, 제대로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불자로서 날마다 발심(發心)하는 자세로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우고 하다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되리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다시 108배를 시작한지 겨우 열흘 남짓 지났지만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편안하고, 자신의 일에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서씨는 불자들에게 "날마다 발심하라"고 권한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보살은 온갖 여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발심하며, 온갖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발심한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발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정진하는 불자의 삶은 멀리 있지 않다. 자신의 생활속에서 자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을 버리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발심의 기본이라는 것도 명심하면서.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신행 캘린더

8월 14일 (수)

■가족 뮤지컬 공연= 〈서유기〉를 소재로 한 가족뮤지컬 '뱃살마녀와 손오공'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에서 29일까지 열린다.

중국 소림사에서 캐스팅된 소림동자들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환경오염 때문에 기형적 뚱보로 태어난 뱃살마녀의 지구 정복야욕을 손오공이 물리친다는 내용. 공연시간은 오후 1시, 3시. 요금은 1만5천원, 2만원 등.(02)789-5600

8월 15일 (목)

■불교상담개발원 '여름워크숍'=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불교상담개발원이 15~17일 영천 은해사에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성숙의 길 해탈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보조사상연구원 실장 인경스님과 영남대병원 정성덕 교수의 강연과 위빠사나 수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2만원.(02)737-8803

■수원포교당 '칠석법회와 음악회'= 수원포교당이 포교당 불교문화원 만불보전에서 칠석맞이 법회와 음악회를 마련했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스님이 법회를 하고 바리톤 유훈석 씨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수원포교당 어머니합창단과 남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찬불가와 가곡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031)245-7048

■두레생태기행 '어린이 자연문화기행'= 어린이들과 함께 떠나는 문화생태기행.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묘역을 둘러본 어린이들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인 양수리에 핀 연꽃 등 생태계를 살펴보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출발은 오전 9시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 1만 3천원.(02)712-5812

8월 16일 (금)

■좋은벗들 '통일강좌'= 좋은벗들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국장을 초빙,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통일의 밑걸음' 강좌를 마련했다.

강좌는 오후 7시 30분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열린다. 16일과 23일에도 김창수 민화협 정책실장과 조성렬 국제안보실장을 초빙한 통일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02)587-8996

8월 18일 (일)

■전통사찰음식연구소 '연음식 시연회'=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는 아산 인취사에서 '진흙에서 피워올린 산사의 여름별미' 시연회를 마련했다.

연구소장 적문스님이 연잎밥, 연자죽, 연근물김치 등 연을 이용한 요리법은 물론 연꽃과 연잎의 약리작용을 소개한다. 출발은 오전 7시 서울 지하철 양재역. 참가비는 4만원.(02)355-5961

8월 19일 (월)

■맑고향기롭게 '북한산 생태 모니터링'= 맑고향기롭게가 오전 10시 서울 지하철 구파발역을 출발, 사패봉과 망월사 등을 둘러보며 북한산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송추 계곡 등지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02)741-4696

8월 20일 (화)

■광주불교교육원 '불교 사회교육'= 광주불교교육원이 단양 정토사 주지 혜광스님을 초빙, 오전 10시 교육원 강의실에서 '현대 복지사회와 대승불교의 보살사상' 주제의 무료 강좌를 마련했다.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혜광스님을 통해 바람직한 불교 복지사업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062)228-9098

건축가 솜씨 살려 손수 茶房 보수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불광산사 김창영 신도회장



◇불광산사는 항상 신도들의 의견을 모아 사찰을 운영한다. 주지 의은스님과 김창영 신도회장이 사찰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계불교미술대사전 한국편 자료수집
"참된 신도 알찬 불광산사 일굴터" 서원

"인연 따라 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한국 최초의 대만 절인 서울 불광산사의 김창영 신도회장은 자신이 외국절인 불광산사에 다니는 이유를 '인연 따라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1976년 대한불교 조계종 경남불교회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을 정도로 불교와의 인연이 깊은 그가 서울 불광산사 신도가 된 것은 2년 전이다. 능인선원을 다니던 김 회장은 지난해 지광 스님의 추천으로 대만 불광산사를 견학차 다녀온 뒤로 그 운영방식과 가르침에 반해 서울 불광산사를 찾게 됐다.

"신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무료병원과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는, 신도 위주의 운영방식이 오늘날 전세계 200여 지부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광산사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 불광산사 역시 최저하게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세계 불광산사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선방과 도서실, 사경실, 차방을 갖추고 이를 언제든 개방해 복잡한 도심속의 편안한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불광산사가 이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은 김 회장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1999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불광산사가 개원할 때만 해도 지하의 차방은 시설이 노후해 비가 새는 일이 다반사였다. 차방은 스님과 신도들 간의 중요한 대화 창구지만 기술은 물론 자금 문제 등으로 쉽게 수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곳을 처음 찾은 김 회장은 건축가라는 자신의 '본업'을 살려 차방 보수공사는 물론 인테리어까지 직접 발벗고 나서 불사를 완성했다. 불광산사의 자랑인 차방 '적수방(滴水房)'은 이렇게 해서 올해 4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불교계 최초의 대만 절인 서울 불광산사의 김창영 신도회장은 자신이 외국절인 불광산사에 다니는 이유를 '인연 따라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1976년 대한불교 조계종 경남불교회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을 정도로 불교와의 인연이 깊은 그가 서울 불광산사 신도가 된 것은 2년 전이다. 능인선원을 다니던 김 회장은 지난해 지광 스님의 추천으로 대만 불광산사를 견학차 다녀온 뒤로 그 운영방식과 가르침에 반해 서울 불광산사를 찾게 됐다.

"신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무료병원과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는, 신도 위주의 운영방식이 오늘날 전세계 200여 지부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광산사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 불광산사 역시 최저하게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세계 불광산사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선방과 도서실, 사경실, 차방을 갖추고 이를 언제든 개방해 복잡한 도심속의 편안한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불광산사가 이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은 김 회장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1999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불광산사가 개원할 때만 해도 지하의 차방은 시설이 노후해 비가 새는 일이 다반사였다. 차방은 스님과 신도들 간의 중요한 대화 창구지만 기술은 물론 자금 문제 등으로 쉽게 수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곳을 처음 찾은 김 회장은 건축가라는 자신의 '본업'을 살려 차방 보수공사는 물론 인테리어까지 직접 발벗고 나서 불사를 완성했다. 불광산사의 자랑인 차방 '적수방(滴水房)'은 이렇게 해서 올해 4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신도회장을 맡은 이후에도 김 회장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사찰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 불광산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불교미술대사전' 한국편에 실릴 자료를 찾는 일도 돕고 있다. 이런 김 회장을 주지 의은 스님은 절의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고 말한다.

"'선연호운(善緣好運)', 즉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운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작은 노력으로 이곳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모일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이지요"

아직 외국 절이라는 인식 때문에 한국 신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만 불광산사를 찾은 이들은 꼭 서울 불광산사를 찾고 이들 대부분이 신도가 된다고 한다. "불광산사는 스님들이 항상 신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신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는 게 김 회장의 자랑이다. 그의 또 하나 자랑은 서울 불광산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강좌들이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선반(修禪班)을, 화요일에는 교리반, 금요일에는 사경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중국어반도 꾸리고 있다. 김 회장 자신도 주말이면 중국어반 강좌에 참가해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불광회 세계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이 대회를 통해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있는데 우리 사찰은 아직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김 회장은 대만과 한국의 문화교류는 물론 한국 내에 생활불교를 펴 나가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 불광산사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서울 불광산사는 전 세계 불광산사 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곧 세계와 한국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기반을 닦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자그마한 힘이 되고 싶다고 밝힌 김창영 회장은 "참된 신도, 신도다운 신도가 많은 알찬 불광산사를 일구겠다"는 각오를 매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추천의 말

의은스님 불광산사 주지



불광산사는 전 세계 200여 지부를 가지고 있는 대만 불광산사의 서울 지부입니다. 1999년 부처님 오신날 문을 연 이후 대만을 비롯해 세계 불교문화와 흐름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의 불교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불광산사에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신도회장으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창영 회장은 '부처님이 보내주신 보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요.

지난해 초 서울 불광산사를 찾은 김창영 회장은 불광산사라면 세계 어디든 갖추어야 하는 찻집인 '적수방'의 설계와 수리, 인테리어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또한 절 운영과 시설관리 등의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토요일이면 부인과 함께 우리 절의 중국어 강좌에 참여하기도 하는 열성적인 신도로, 모든 일에서 든든한 '친구' 입니다.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2년도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극락장엄경) (화 엄 경)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극락장엄경(아미타경 ·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극락장엄경 (1)(2)(3) · 법화경(1)(2)(3) · 금강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화엄경론(이봉현장자)	한정섭 법사	신화엄경론 (1)(2)(3) · 화엄경 약찬게, 법성게 · 화엄십지품
최봉수 교수의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함경(12연기설)	최봉수 교수	아함경 · 반야경 · 법화경 · 화엄십지품
송찬우 교수의 대승경전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엄경(1)	송찬우 교수	능엄경 (1)(2)(3) · 금강경 · 유마경 (1)(2)
인도-티벳어학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오후 7시	산스크리트어	최종남 교수	산스크리트문법, 팔리어문법, 티벳어문법, 법화경강독, 잡아함강독, 보리도차제론강독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2년 7월 20일~ 2002년 9월 9일(월)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7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2년 9월 9일(월) 오후 7시 ● 대승경전학과 : 2002년 9월 10일(화) 오후 2시 ● 근본불교학과 : 2002년 9월 12일(목) 오후 4시 ● 산스크리트학과 : 2002년 9월 13일(금) 오후 2시

4. 입학금 입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동산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모집기간 : 연 2회(매년 2월, 8월)
■불교학과 : 200명(정규,주간,통신반)

불교한문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교수진 · 심재돈 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 교수(승가대), 무진장 스님, 김병조 교수

불교미술학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교수진 · 윤열수 교수(문화재전문위원),
· 김익홍 교수(전 동국대교수)

우리 춤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지도교수 이애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1. 개강일시
2002년 9월 10일(화): 우리춤학과
2002년 9월 11일(수): 불교미술학과
2002년 9월 12일(목): 불교한문학과

2. 원서접수 및 문의
본 대학 사무국 : 02)732-1206~8

불교 교육 전문 도량 동산불교대학

2002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양성도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장엄염불	◇백일, 돌,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입관의식 ◇장례의식(2)……입종, 매장, 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 (1년) • 연구반 30명 (1년) • 야간반 30명 (1년)	• 한글불교 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2002년 9월 7일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1:00~3:00 • 매주 수요일 오후7시(야간반)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 함)

3. 개강일시 2002년 9월7일(토) 오후1시(정규반) 11일(수)오후7시(야간반)

4. 입 학 금 입십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732-1207

6.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 의식 교육 도량 동산불교의식 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민족화해, 조국통일, 교통안전 기원 및 호국영령 천도"

백고좌대법회

초 · 청 · 법 · 사

7월 20일 ~ 10월 27일 (100일간)



7월 20일 ㊏ 지성큰스님
7월 21일 ㊐ 천운큰스님
7월 22일 ㊊ 자광큰스님
7월 23일 ㊋ 성우큰스님
7월 24일 ㊌ 진제큰스님
7월 25일 ㊍ 법장큰스님
7월 26일 ㊎ 도혈큰스님
7월 27일 ㊏ 고산큰스님
7월 28일 ㊐ 혜정큰스님
7월 29일 ㊊ 지광큰스님
7월 30일 ㊋ 의통큰스님
7월 31일 ㊌ 지하큰스님
8월 1일 ㊍ 지성큰스님
8월 2일 ㊎ 현해큰스님
8월 3일 ㊏ 지운큰스님
8월 4일 ㊐ 월운큰스님
8월 5일 ㊊ 일면큰스님
8월 6일 ㊋ 법산큰스님
8월 7일 ㊌ 영산큰스님
8월 8일 ㊍ 법타큰스님
8월 9일 ㊎ 도업큰스님
8월 10일 ㊏ 태원큰스님
8월 11일 ㊐ 성운큰스님
8월 12일 ㊊ 보광큰스님
8월 13일 ㊋ 법성큰스님
8월 14일 ㊌ 무진장큰스님
8월 15일 ㊍ 지성큰스님
8월 16일 ㊎ 지종큰스님
8월 17일 ㊏ 인환큰스님
8월 18일 ㊐ 정락큰스님
8월 19일 ㊊ 혜인큰스님
8월 20일 ㊋ 묘허큰스님
8월 21일 ㊌ 진원큰스님
8월 22일 ㊍ 벽봉큰스님
8월 23일 ㊎ 진제큰스님
8월 24일 ㊏ 지오큰스님
8월 25일 ㊐ 견성큰스님
8월 26일 ㊊ 철우큰스님
8월 27일 ㊋ 혜능큰스님
8월 28일 ㊌ 수진큰스님
8월 29일 ㊍ 성열큰스님
8월 30일 ㊎ 현묵큰스님
8월 31일 ㊏ 호진큰스님
9월 1일 ㊐ 지관큰스님
9월 2일 ㊊ 삼현큰스님
9월 3일 ㊋ 다정큰스님
9월 4일 ㊌ 정무큰스님
9월 5일 ㊍ 보각큰스님
9월 6일 ㊎ 지정큰스님
9월 7일 ㊏ 암도큰스님
9월 8일 ㊐ 지묵큰스님
9월 9일 ㊊ 문인큰스님
9월 10일 ㊋ 명선큰스님
9월 11일 ㊌ 도영큰스님
9월 12일 ㊍ 성수큰스님
9월 13일 ㊎ 종하큰스님
9월 14일 ㊏ 지선큰스님
9월 15일 ㊐ 정관큰스님
9월 16일 ㊊ 지환큰스님
9월 17일 ㊋ 현산큰스님
9월 18일 ㊌ 원융큰스님
9월 19일 ㊍ 인각큰스님
9월 20일 ㊎ 혜월큰스님
9월 21일 ㊏ 현석큰스님
9월 22일 ㊐ 법홍큰스님
9월 23일 ㊊ 무비큰스님
9월 24일 ㊋ 무관큰스님
9월 25일 ㊌ 지현큰스님
9월 26일 ㊍ 성오큰스님
9월 27일 ㊎ 장산큰스님
9월 28일 ㊏ 현봉큰스님
9월 29일 ㊐ 혜남큰스님
9월 30일 ㊊ 성타큰스님
10월 1일 ㊋ 정일큰스님
10월 2일 ㊌ 혜창큰스님
10월 3일 ㊍ 링 린 포 체
10월 4일 ㊎ 현장큰스님
10월 5일 ㊏ 지안큰스님
10월 6일 ㊐ 보성큰스님
10월 7일 ㊊ 금담큰스님
10월 8일 ㊋ 청운큰스님
10월 9일 ㊌ 운성큰스님
10월 10일 ㊍ 지원큰스님
10월 11일 ㊎ 보광큰스님
10월 12일 ㊏ 종광큰스님
10월 13일 ㊐ 청화큰스님
10월 14일 ㊊ 도봉큰스님
10월 15일 ㊋ 약산큰스님
10월 16일 ㊌ 각성큰스님
10월 17일 ㊍ 홍교큰스님
10월 18일 ㊎ 확산큰스님
10월 19일 ㊏ 정련큰스님
10월 20일 ㊐ 근일큰스님
10월 21일 ㊊ 홍선큰스님
10월 22일 ㊋ 원명큰스님
10월 23일 ㊌ 도문큰스님
10월 24일 ㊍ 명정큰스님
10월 25일 ㊎ 진욱큰스님
10월 26일 ㊏ 무심큰스님
10월 27일 ㊐ 진제큰스님

매일 10시

▶일백 분의 큰스님을 초빙하여 법문을 통한 가정의 행복과 국운 융성을 기원하고 참가대중이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기를 발원 기도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나날이 늘어 가는 교통사고로 부터 나와 내 가족, 모든 국민들이 안전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발원 기도 드립니다.
▶구국충의 열사를 비롯한 6·25 무명용사들과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영가와 선망조상, 유주무주 고혼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한 축원기도를 매 10일마다 봉행합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본·말사
주관 : 동화사 백고좌대법회 봉행위원회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 전화 : (053)982-0101

정기노선버스 셔틀버스 시간표

- 105번 좌석버스 : 성서 계대 동문-서문시장-한일극장-칠성시장-큰고개 오거리-동화사(매 15분마다)
- 131번 일반버스 : 동화사 - 대구공항 - 파티마병원 - 동인네거리 - 복현동 - 동화사 (1시간마다)
- 1호차 : 보현사(09:00) - 칠성시장 승강장(09:22) - 신암우체국(09:28) - 통천사(09:33) - 대구공항(09:38) - 동화사(10:00)
- 2호차 : 대곡강산스파랜드(09:00) - 화원시장 건너편 승강장(09:11) - 성서우체국(09:26) - 칠곡삼성병원(09:43) - 동화사(10:15)
- 3호차 : 범물동사무소(09:10) - 만촌동 태왕모델하우스(09:23) - 범어제주가든(09:28) - 효목동 13번 종점(09:40) - 통천사 앞(09:43) - 동화사(10:10)
- 4호차 : 알리앙스예식장(09:10) - 7호광장 교보생명(09:15) - 적십자병원(09:24) - 청구고 성조타운(09:32) - 통천사(09:42) - 동화사(10:10)

사람 남길탑, 이제 무한 21이 함께하겠습니다
불교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3호 동명빌딩 3층
전화 : 02)447-8847~8 팩스 : 02)447-7071 www.muhan21.com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한-일 불교 교류 소중한 기회"

백제불교 초전지 성역화 추진위장 다정스님



"한 일 불자들이 새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좋은 기회를 맞아 한국과 일본의 불자들이 마음을 합하고 불교문화를 창조하는데 힘을 보태게 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 추진위원위 위원장' 다정스님(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주지 · 사진)은 일본불교의 지도자급 스님들이 영산사에서 열린 '문화교류를 위한 1천일 기도 입재식'에서 백제불교 초전지 성역화불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에,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불교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문화교류가 활발해져 불교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산사 주지 와사다 에슈스님과 원수사 주지 신준도 스님이 법성포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흔쾌히 불사 동참을 수락해 기쁘다"는 스님은 "빠른 시일내 불사가 마무리 되어 세계평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법성포 불사에 전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영광군 법성포 백제불교초전지 성역화 사업 조감도. 1:마라난타존자상 2:무용루 3:기념광장 4:탑원 5:불교유물 전시관 6:기념품 판매소 7:정문 8:정자 9:종교 10:연못 11:데크 12: 화장실

백제불교 초전지 법성포 한·일 불교계 성역화 합심



◇한국과 일본의 불교 지도자들이 법회를 끝내고 영산사 법당앞에서 기념촬영.

99년 착공 2004년에 회향

마라난타像 · 만불전등 건립

384년 한반도 서쪽, 법성포구에 검은 얼굴의 승려복장을 한 이방인이 배에서 성큼성큼 내렸다. 이를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는 '침류왕 원년 9월, 인도승 마라난타가 진나라로부터 이르니 왕이 궁중으로 맞아들여 예우하고 공경하므로 불교가 시작됐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검은 얼굴의 인도 승려가 바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한 마라난타(摩羅難陀). 인도 간다라로부터 동진을 거쳐 온 마라난타 스님은 수행을 깊이 하여 신통력도 뛰어나 불교를 전하는데 헌신했으며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인연이 닿은 곳이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전한다.

마라난타로 인해 백제에 전래된 불교는 약 1백여년 후, 활발한 교류를 가졌던 일본에까지 전해진다. 많은 스님들이 전법을 위해 일본으로 갔으며 경전, 불구(佛具)들이 전해져 일본은 불교전래로 인해 비로소 문화의 싹이 돋아나고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바로 마라난타스님이 처음 도래한 곳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일대 1만 4천여평에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 불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백양사 불갑사를 비롯한 호남불교계와 전남 영광군이 지역 전통문화의 역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념비적인 장소를 조성,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적 문화역사를 생생히 볼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영광군과 '성역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다정 백양사 주지)' 가 주관하는 불사는 1999년 시작됐다. 오는 2004년 상반기 불사가 회향되면 높이 18m의 마라난타 상을 비롯 만불전, 부용루, 불교전시관, 탑원과 홍교, 마라난타 스님이 타고온 배, 정자, 데크, 연못 등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된다(조감도 참조).

일본에 부처님가르침을 전해준 '고마운 나라' 백제불교의 처음을 상징하는 영광 법성포 성역화 불사에 일본 불교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7월 14일, 일본 오이타시(大分市)에 있는고찰 영산사(靈山寺)에서는 '세계평화와 한일문화교류를 위한 천일기도 입재식' 이 열렸다.

일본인들은 백제를 '은인의 나라' 라고 부른다. 그러한 고마움의 일환으로 일본 불자들이 '은인의 나라' 백제초전지 성역화를 위한 천일기도를 올리고 불사를 위한 모연(募緣)에 들어간다. 천일기도 대법회는 조계종 원로 천운스님(대둔사 조실)의 증명하에 다정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일본 천태종 와사다 에슈 대승정을 비롯 일본 불교계 지도자들, 영산사 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일본과 한국의 전통예불의식으로 시작된 법회는 관음원 아베스님이 사회를 맡아 2시간동안 봉행됐다. 천운, 다정스님을 비롯 백양사 총무 진우, 교무 도성, 호법 원일,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김봉열 영광군수, 이종근 영광군 문화관광 과장 등이 한국에서 건너와 동참했으며, 일본 고려사 조실 태연스님, 오오사카 관음사 주지 원연 스님등도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천태종 대표 신준도, 연력사 대표 고가모 가쿠젠, 前 천태종 종무총장 후지 고명, 입정교성회와 진언종 대표 등 불교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천운스님은 "한국과 일본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되새기면서 이러한 대작불사에 함께 동참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은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가 뜻 깊은 자리에서 만나 인류평화를 기원하고, 공동으로 큰 불사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다.

김봉열 영광군수도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서로 영향받으며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니 앞으로도 한 · 일 두 국민은 마음을 열고 새 역사를 엮어 공동번영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자"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축사가 이어졌다. 일본 스님들은 한결같이 "마라난타스님이 전해준 불교가 일본에 와서 피와 살이 되었다"며 "그물망의 한 코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한 코 한 코가 모여 그물망이 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모두 합심하면 불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회향을 기원했다.

이렇게 일본 불교계가 백제불교 초전지 성역화에 적극 나서게 된 데는 한국인 권명애 스님의 역할이 컸다. '묘아이' 스님으로 불리는 권명애 스님은 일본 원수사(圓壽寺) 회주 진호탕스님의 병을 고쳐주면서 일본 불교계와 인연, 지난해 천태종에 입교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천일 기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권명애 스님은 입재식을 기점으로 불사의 원만성취와 한 일 불교 발전을 위한 기도에 들어갔다.

일본 오이타市 영산사=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7월 14일 일본 영산사에서 열린 '세계 평화와 한일문화교류를 위한 천일기도 입재식'에서 김봉열 영광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는 연말 완공되는 부용루. 1층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29면 조각으로 조성되며, 2층은 전망대와 강당으로 활용될 예정.

日스님 · 신도등 300여명 동참

'은인의 나라' 불사 위해 모연



◇마라난타스님이 백제에 올때 배에 함께 싣고 왔다고 전해지는 석불(진내리 옹성마을). 전시관이 완공되면 옮겨져 봉안된다.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1만 4천평 일대에 진행중인 백제불교초전지 성역화 불사는 영광군이 지역 기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총사업비 170억 6천 4백만원의 대 프로젝트다. 영광군이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지자체장인 김봉열군수의 헌신적인 지원에서 잘 나타난다. 이번 일본방문은 물론이고 98년에는 백양사 스님들, 조선대 김인경 교수 등이 마라난타 스님과 관련있는 인도, 파키스탄 등을 직접 답사했다. 영광군은 98년 2월에는 동국대에 학술 용역을 의뢰, 세미나를 통해 최초도래지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2000년 4월 성역화추진위가 구성됐고 진입도로 개설에 이어 본공사인 부용루의 기공식이 지난해 6월 7일, 지역민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시관에는 마라난타스님이 백제에 올 때 모셔왔다는 석불을 비롯, 추진위가 파키스탄 등에서 구입한 각종 진품 간다라 불교미술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포구 앞 바다에는 마라난타스님이 타고온 배도 띄워지며, 전망대와 연못, 데크도 조성한다.

'성역화불사' 어떻게 진행되나

총사업비 170억 大프로젝트

관광객위해 전망대 · 연못 조성

"일본불교의 씨앗" …감동적

日 영산사 주지 와사다 에슈 대승정



영산사 주지 와사다 에슈(73 · 사진) 스님은 일본 천태종단의 주요 직을 돌아가며 맡다가 지난해 대승정(원로)으로 추대된 일본 불교계의 원로이다.

와사다 스님은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지만 영광군 법성포 불사 공동 참여를 통해 정신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한국에 가 법성포 불사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바로 일본불교의 씨앗이 심어진 곳이구나 생각하니 몹시 감동적이었다"고 토로한 스님은 "한국에 10여차례 갔었으나 지난 번 백양사에서 숙식하며 한국 사찰의 전통과 수행풍토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5살때 폐가 나빠 요양소에서 요양하다가 무상(無常)을 절실히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스님은 이후 승려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전파되도록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데 불제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호로 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⑯ 여래수량품 제16

부처님의 본체

'제2장 훌륭한 수단'이라는 '방편품(方便品)'이 이론적이며 공간적으로 사물의 참모습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제16장 영원한 생명'의 수량품(壽量品)에서는 종교적이며 시간적으로 부처님(즉 진리)의 본체(법신, 法身)를 밝힌 것으로서, 이 두 장은 둘이면서 하나임과 동시에 하나이면서도 둘, 즉 불이이이(不二而二) 이이불이(而二不二)인 상즉(相卽)의 관계이다.

앞의 '제15장 종지용출품'에서 구도자 마이트레야(彌勒)를 대표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품고 있는 놀라움과 의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16장 '여래수량품'이다.

첫머리에 부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그대들은 여래의 진실한 깨달음의 말을 똑똑히 듣고 이해하여 굳게 믿도록 하라"고 강조하셨다('三誡'). 이에 대해 대중들도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세존이시여, 원하고 원하오니 그 진실을 설해 주소서. 저희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간청하고('三請') 다시 한번 더 청한다('重請').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를 받아 "그대들은 여래의 본체('如來秘密')와 자유자재한 능력('神通之力')을 자세히 들어라"고 하시며('重誡') 비로소 설법을 시작한다. 이렇게 3성 3청(三誡三請) 중청중성(重請重誡)의 형식을 거친 후 말씀하신 부처님의 설법 내용은 지금까지의 석가모니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부처님은 우주탄생~소멸까지의 '영원한 절대진리'를 인격화한 것

물론 부처님의 본체에 대해서는 〈법화경〉의 개경(開經)인 〈무량의경(無量義經)〉 '덕행품(德行品)'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그때는 시간성(時間性)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무량의경〉에 의하면 무량의(無量義)에는 체무량(體無量)과 용무량(用無量)이 있다. 부처님의 본바탕('法身')은 한량없이 크기 때문에 체(體)가 무량하다는 것이니, 다시 말해 오직 한정된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세계 속에 있는 진실한 모습, 즉 현상 세계와 겹쳐서 존재하는 '실재'의 세계인 실상의 본체('佛')는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무한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한량이 없다'고 한다. 또 실상, 즉 부처님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한 세계, 다시 말해 절대의 세계('無爲')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든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인 '실상(佛)'의 '작용(用)' 또한 무한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작용(用)이 무량'한 것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절대진리를 인격화한 것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몸을 나타내신 석가모니세존을 부처님이라 하고, 또 영원히 불멸하는 상주(常住)의 법신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 둘을 두고 의아심을 품는 경우가 바로 앞장의 '종지용출품'에서의 미륵보살을 비롯한 대중들의 경우이다. 물론 석가세존도 부처님이시고,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진리의 부처님도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도에서는 깨달은 분('覺者')을 붓다(佛陀: buddha), 즉 부처님이라 했고 또 붓다란 진리에서 왔다하여 여래(如來: tathagata)라고 했다. 이는 변화하는 현실상(現實相)의 본래적인 상태, 즉 현실상의 진리는 변화하는 것이지만, 이 변화한다는 것의 영원상(永遠相) 혹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진리는 절대 불변하는 것(이를 무위(無爲)라 한다)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여(如: tatha: 있는 그대로)' 라든지 '진여(眞如: tathata: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고 부르며 부처를 여래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진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침이라고 말하며 핵심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제행(諸行)은 무상(無常)이다'고 하며 이 세상의 만물만상은 '변화'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세속적인 진리는 '변화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진리란 변화하지 않는 것('不變')인데 변화하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틀림없이 반문하겠지만, '이 변화한다는 진리는 영원토록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불변한다는 것이다' '공(空)' 또는 '공성(空性)'이라는 것은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무릇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이것은 공성, 즉 실체(實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 즉 불변하는 '그 절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대적 진리'를 인격화한 것이 부처님이다. 그렇다고 '공'이 부처님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부처님의 본체는, 아득한 그 옛날 즉 우주가 생겨나서부터 마지막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있는 절대 진리를 이름하여 우리는 부처님이라 한다.

▩무설정사 조실

여름특집



마하 고사난다

(캄보디아 불교 최고 지도자)

1953년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새로이 출발한 캄보디아.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고 내분이 계속되더니 1976년, 폴 포트(Pol Pot)가 캄푸치아(Kampuchea) 인민정부를 수립했다. 극단적인 모택동주의 정책을 표방한 폴 포트 정권은 집권 3년 8개월 동안, 지식층과 도시민 200만여명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른바 '킬링 필드(Killing Field)'의 나라 캄보디아. 이 대재앙에 맞서 비폭력 평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민들에게 재건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캄보디아 불교의 최고 지도자 마하 고사난다 스님(Samdech Preah Maha Ghosananda). 왜 이 세상은 갈등 투성이며 전쟁이 끊이지 않는지, 고사난다 스님의 일생은 이에 대한 고뇌와 해답을 찾는 일생의 연속이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과 함께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운동의 선구자인 고사난다 스님의 일생은 우리 시대, 진정한 '보살의 길'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보살심…전쟁·고



◇'킬링필드의 살아있는 보살'로 불리우는 고사난다 스님은 숭산스님,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과 함께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고 있다.

숲속의 고승, 캄보디아 어린이 아버지, 15개국어를 구사하는 빈이자 학자, 서구 학인들의 명상자, UN의 평화중재자, '캄보디아 아있는 국보', '살아있는 진실' 그를 표현하는 말들은 너무나 많

세계적인 평화·환경운동 지참여불교운동의 선구자인 스님

고사난다 스님은 ——

킬링필드 대재앙

"살아있는 국보"·

보디아 내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하는 비폭력운동을 벌였고, 피지원과 국가 재건을 위해 지원까지 않았다. 그의 따스한 인간위대한 자비심은 그를 '캄보이간디'로 불리우게 했다.

1929년 캄보디아 타케오에서

마하 고사난다

캄보디아의 고통은
이 고통으로부터
위대한 동정심은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로운 가족은
평화로운 공동체는
평화로운 나라는
모든 존재들이 행

생명구제 서원하면 마음 더없이 고요

자비심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뿌리

1976년 폴 포트 정권이 집권한 이래 3년 8개월 동안, 캄보디아 불교는 업청난 타격을 입었다. 3600개의 사찰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한 때 6만여명에 달하던 승려들 대부분이 박해를 받거나 학살당했다. 1979년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진 후, 승적에 여전히 남아있는 스님들은 3000명에 불과했다. 고사난다 스님은 이들 살아남은 소수의 스님 중 한 분이었다.

캄보디아에 내전이 발생했을 때 그는 태국 남부의 숲속에서 명상과 고행을 하며, 극심한 혼란으로부터 도망치듯 떠났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가족들은 대부분 캄보디아에서 폴 포트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의 조국을 삼킨 엄청난 비극에 고사난다 스님은, 동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려는 듯 엄청난 원력으로 비폭력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캄보디아-태국 국경에 위치한 모든 캄보디아 난민촌에 사케오(Sakeo), 카오이당(Khaoeedang) 사원 등의 절을 지었으며, 이 캠프 저 캠프를 다니며 설법을 하였다. 1978년, 고사난다스님이 처음으로 사케오(sakeo)난민촌에 도착한 순간, 피난민들의 고통에 찌든 얼굴에는 위대한 사랑이 번졌다. 오랜 불교 전통이 피난민들의 의식속에 떠올랐다.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우는 피난민들의 울음은 캠프에 울려 퍼졌다. 많은 이들은 '마치 보리수가 불타듯이, 깊이 잠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을 불법(佛法)이 다시금 일깨운 날'이라고 말했다.

사케오 캠프를 최초로 방문한 이후, 고사난다 스님은 평화의 정착과 캄보디아 재건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했다. 그것은 당파주의와 무능력, 부패한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민족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숭고한 시도들이었다. 부처님께서 하신 것처럼, 고사난다 스님의 노력은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민중들에게 스며들었다. 고사난다 스님은 그 힘이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것이라고 믿었다.

1991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마하 고사난다는 마치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투쟁과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데려가 명상과 설법으로써 고통으로 제거하고 평화로 이끄셨듯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첫 번째 '평화 행진'을 이끌었다. 마을과 마을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평화행진에는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따라붙었다. 이 행진을 통해 고사난다 스님은 '평화의 다리'가 되어 전쟁으로 갈라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다.

그는 다방면의 비폭력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평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들 예를 들면, 무계획적인 벌목과 채광 등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섰다. 부드러운 자비심과 쉼없는 용기를 대변하는 고사난다 스님. 그를 마주 대한 후 그의 미소와 자비스런 친절함을 경험하는 순간, 영혼을 치유하는 감동의 물결이 신도들에게 전해진다.

그는 폴 포트 정권의 대학살이 끝난 후, 처음에는 홀로 승려를 교육시키고 사원을 건립하면서 캄보디아 불교의 재건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가슴은 흔들림없이 자비롭고 즐거움에 충만해 있었으며, 순수한 사랑의 가르침을 펼쳤다. 그는 누군가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면 그의 바랑에서 옷을 꺼내 주거나, 그의 발우에서 음식을 건내주었다. 전쟁이 주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같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고사난다 스님은 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보리심'에 있다고 말한다.

"그 마음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윤회하는 생명 모두를 연민하는 마음에서 됩니다. 그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고, 모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려는 마음에서 보리나옵니다. 보리심은 모든 생명들을 구제하기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서원이며, 모든 생을 위해 언제든지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원력다. 불법(佛法)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완전히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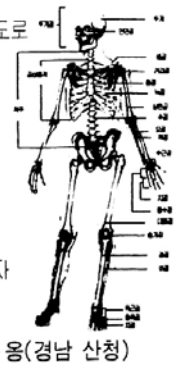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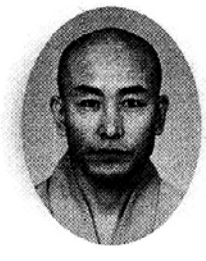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화엄기도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이
지은 죄
병의 원인은 인연
따라 오는 법
고침도 인연 따라
낫는 법입니다.



■ 적용사항 : 원인 모를 병고 마음 병(정신)

■ 문 의 : 031-336-3734
011-9711-3734

경기도 용인시 중앙동 325-8

해 원 사

영가천도「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에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567-6820, 041)567-6822

희소식

梵 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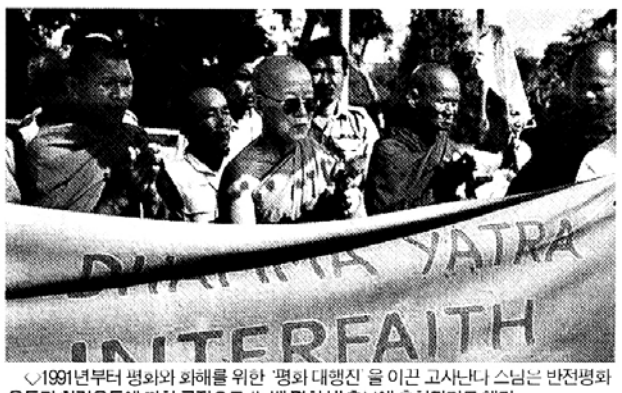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P : 011-369-2732



◇고사난다 스님의 자비심은 가족을 살해한 크메르루주군에 대한 미움도 잊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1991년부터 평화와 화해를 위한 '평화 대행진' 을 이끈 고사난다 스님은 반전평화 운동과 환경운동에 끼친 공적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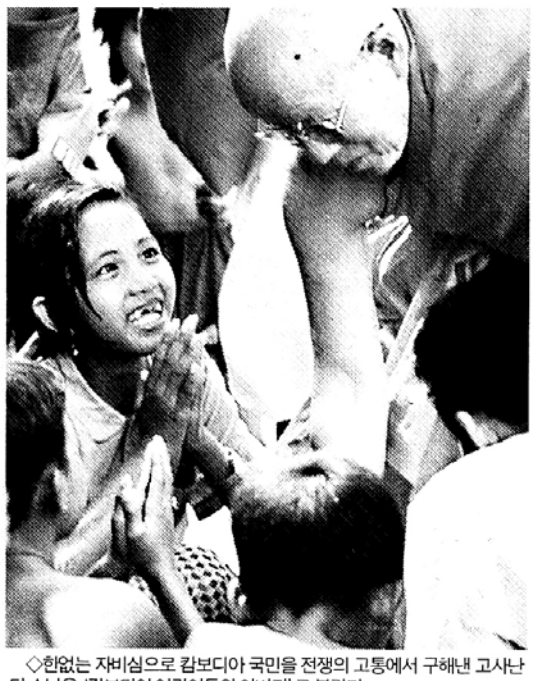
극복 에너지의 원천'

난 스님은 43년 타케오 인근 사원에서 출가했다. 53년 인도 나란다대 수학을 마친 후 일본,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다. 80년 UN 산하 기구 '평화 계획' 설립,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의 날' 을 제정했으며, 88년 캄보디아 종정에 추대된 이후 로마, 미국, 티베트, 영국, 호주 등에서 순회법회를 계속하고 있

평화운동으로 맞서

하기구 '평화계획' 설립

다. 92년 세계 인권상 수상, 98년 나와 노 평화상 수상. 저서에 〈한 걸음 한 걸음(Step by Step : Meditation on wisdom and compassion)〉과 〈과연 누가 적인가(Who is the Enemy)〉 〈평화는 우리 모두의 목표(Peace is our common goal)〉 등이 있다.



◇한없는 자비심으로 캄보디아 국민을 전쟁의 고통에서 구해낸 고사난다 스님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아버지' 로 불린다.

행복-슬픔, 실망-만족에 끄달리지 말고

감정의 파도없는 '평안의 섬' 에 안착을

詩

깊었다
대한 동정심
마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다
가족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든다
은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만든다
로움 속에서 살아가길…

역시, 평화로울 것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생기고, 멸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잃고, 얻는 인생에서 일일이 행복과 슬픔, 환희와 절망, 실망과 만족, 희망과 공포 등으로 일일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가 없는 '평안의 섬' 에 안착하길 바란다. 무관심한 둔감이 아닌, 또렷한 정신에 입각한 평정심의 유지를 말이다.

1981년, UN은 캄보디아의 미래를 논의할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때 고사난다 스님은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을 주관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한 크메르 루즈 지도자가 스님에게 다가가, '태국 국경 근처에 사원을 건립해 줄 수 있는지' 를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사난다 스님은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 많은 참석자들은 "오우! 고사난다 스님이 적과 대화를 나누고, 적을 돕겠다고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사난다 스님은 "사랑은 그들이 고귀하거나 저급하건 간에,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모든 생명을 감싸안는다"고 상기시켰다.

고사난다 스님은 독재자를 사랑하는 것, 즉 캄보디아인들이 크메르 루즈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러나 복수와 증오, 앙갚음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윤회를 되풀이 하리란 것이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였다. 고사난다 스님은 "화해는 우리가 정의와 조건에 굴복했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오히려 우리는 모든 협상자들에게 사랑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적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적과 우리는 모두 사물의 이치에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직 자비심과 올바른 집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모두 각자의 구제(救濟)와 행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비행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보살행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를 무명에서 광명으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고사난다 스님은 '국제 참여불교 네트워크' (INEB), 불교평화우의회(BPF) 등 국제적인 NGO들은 물론 캄보디아 헌법의회 자문위원회의 고문 및 자문 역할을 하면서 세계 평화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1994년 이태리에서 열린 제 6회 세계 종교평화회의에 참석, 대회를 주재할 정도로 '종교간 대화' 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마하 고사난다는 그의 무한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다. 그들이 친구이든, 적이든, 정신과 행동으르써, 그는 세계의 종교적 인종적 갈등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워짐과 동시에,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비심과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심은 깨달음을 얻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며, 여러 수준 높은 수행의 뿌리가 된다. 아무리 오래 경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지닌 보살의 단 일분간의 명상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생명의 구제를 서원으로 삼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굳건히 하면, 마음은 더없이 고요해진다. 자비와 사랑의 성스러운 물이 마음의 모든 굴곡을 감싸며 잔잔하게 하는 까닭이다.

전쟁을 끝내고 지금 활발하게 재건운동을 벌이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담은 스님의 소중한 법문 하나 하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 환경, 질병, 전쟁 등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님은 마음과 말과 몸,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하는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수행자라고 말하고, 언제나 수행자처럼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세계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인스님

법인스님의 은사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평소에 스님께서 젊은 수좌들에게 베풀었던 마음씀씀이를 떠올리며 절에 갔다. 마침 결제철에다, 설날도 얼마 남지 않은 때라 내심 걱정했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 있었다. '스님께서 누구에게나 보여주셨던 정성스러움과 평소 당신 상좌가 아니더라도 젊은 수좌들에게 베풀었던 마음 씀씀이에 보답한다' 는 보은의 마음으로 온 스님들이 많았던 것이다.

평소 스님은 말씀 하나를 하시더라도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를 담아 하신다. 도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법인스님이 먼저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 그럴때면 항상 반갑게 먼저 인사하신다. 또 절대 반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어때요? 공부는 잘되지요?"하며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시고 전화를 바꿔준다. 권위만을 내세우는 어른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만 스님께서는 언제 어느때나 먼저 아랫사람을 걱정하고 챙겨주신다. 서열이 엄격한 수직사회의 대표격으로 군대를 들지만 불



가(佛家)도 엄격한 수직사회다. 자비와 평등을 내세우는 불가지만 평등 사회가 되지 못하다는 점은 한번쯤 재고해 보아야 한다. 승가내서만이 아니라, 일부 스님들이 신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고압적인 면이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다.

내 도반중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스님이 있다. 법인스님은 그 강사스님이 제자뻘 되지만 절을 올리면 꼭 맞절을 하신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강사이니 당신보다 아래라도 '어른' 이라는 것이다. 언젠가 강원 도반들이 스님 절에 모인 적이 있다. 그 스님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도반이라도 저 스님을 강사로서 어른 대접해야지 함부로 하면 되느냐"고 훈계를 하셨다.

일전에 감명깊게 본 영화 중에 '원 트루 씽(One True Thing)' 이 있다. 줄거리는 '도시 생활하던 딸이 암투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러 고향에 돌아온다. 기자로서 얻은 명예까지 내던지고 어머니를 돌보지만,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아 매사에 불만이 가득했고 어머니의 평범한 삶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의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해가고, 사소한 것에도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음을 깨닫는다' 는 것이다. 이 영화처럼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되 그 안에서 인간의 따스한 정을 내포하는 자체가 수행이요, 소욕지족으로 일관된 수행을 지향하는 것 또한 선(禪)이 아닐까(?) 억지부려 본다.

법인스님은 삶 자체가 수행이 되야 한다는, 평범한 지혜를 후학들이 스스로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다. '일상생활이 곧 진리' 임을 주장한 분이 중국 당나라 때 마조선사다. 이후 중국 · 한국의 선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사상이 '일상의 마음' 이다. 물론 깨닫고 난 뒤의 마음과 깨닫기 전의 마음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 본바탕은 같은 차원이다. 법인스님께서는 넉넉치는 않지만 자신의 형편대로 베푸시는 인간적 정이 일상인 분이다. 이것이야말로 근원적인 마음바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스님들은 자기에게 맞지않는 승복은 서로 주고 받기도 하고, 젊은 스님들은 어른 스님들로부터 승복을 물려입기도 한다. 언젠가 가을에 도반 절에 가서 스님과 합석한 자리에서 차를 마시면서 "밖에 자주 나가다 보니 춘추옷 여벌이 없어 불편하다"고 하자, 스님께서는 당신이 입지 않는 옷이라고 하면서 한 벌을 주셨다. 스님께서는 "공부하는 학인에게 옷 한 벌 제대로 해주지 못

'삶 자체가 수행' 수범으로 깨닫게

아랫사람에게 항시 존댓말 · 배려

해 미안하다"며 도리어 사과까지 하셨다.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 등 누구에게나 챙겨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법인스님이다.

절 집에는 법회, 불공등 큰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일이 많다. 큰 일을 치를 때, 어른 스님들은 분주하기는 한데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힘겨운 기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역정 내거나 힘겨워 하지 않는다. 아랫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농담도 들어주고 부드럽게 응해 주시니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평소에도 모시고 차를 마실때면 어른 스님들의 수행이야기와 함께 '세월이 덧없고 빨리 흘러가니 젊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는 충고를 곁들여 해주신다.

〈법화경〉 서품에 '초선 중선 후선 (初善 中善 後善)' 이라는 말이 있다. 즉 처음도, 중간도, 후에도 여일(如一)함을 말한다. 그러나 고단하고 갈등이 많은 인간관계에서 처음처럼 여일하기란 쉽지 않다. 법인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나 근 15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스님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여전하시다. 요즘 불가에서조차 내 분증, 내 상좌만 챙기는 시대에 스님은 설령 당신의 제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차별없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베풀고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젊은 수좌들을 거두고 있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전국불교 모든 광고 문의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54-3733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만해'를 다시 읽는다

승려이면서 시인, 독립운동가로 한국 근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을 기리기 위한 제4회 만해축전이 2~5일 설악산 백담사에서 열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강원도,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전에서는 만해의 삶과 사상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심포지엄과 시인학교, 전국고교생백일장,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다.

백담사서 제4회 축전…문학 · 불교사상 재조명



1999년 만해축전 학술 심포지엄에서 인권환 교수(고려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방이후 발표된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논문은 400편이 넘는다. 학위 논문만 80여 편에 달하며 이 가운데 17편이 박사 학위 논문이다.

만해 스님의 문학과 불교 사상의 그 무엇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여전히 만해를 '읽게' 만드는 것일까?

'만해 문학의 21세기적 의미' 심포지엄은 만해의 시에서 새로운 시대 가치를 발견했다. 이선이 교수(경희대)는 "만해 시가 다시 읽히는 것은 그 속에 생명 일반이 지닌 삶의 원리에 대한 천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만해 문학에 나타난 생명사상'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만해의 시에는 우주생명의 동체적 관계성과 생명 본성인 사랑의 정신이 근간이 되어 생명 본연의 질서 회복에 대한 희구가 절절히 배어 있다"며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해 시가 내포하고 있는 생명 사상은 생명의 깊은 유대를 직시하고 상생의 삶을 추구하는 화엄적 생명공동체를 위한 미학적 초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윤재웅 교수(선문대)는 "〈님의 침묵〉에 나타난 자유는 본질적으로 누구로부터 빼앗기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나아가 찾아서 '보는' 것이다"며 "이런 적극적 자유주의가 〈님의 침묵〉의 빛나는 사상이자 미학임을 생각해 보는 일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귀감이 될 만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또 "〈님의 침묵〉 속에서의 자유는 불교의 세계관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며 "일즉다, 다즉일, 사사무애, 법계연기 등이 모두 자유의 다른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다시 보는 만해와 불교' 심포지엄은 만해의 삶과 불교 사상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만해 불교의 이념과 그 현대적 의미'를 발표한 고명수 교수(동원대)는 만해의 불교사상을 '돈오점오, 구세, 보살행, 민족, 민중, 독립, 이별, 분노와 눈물'이라는 키워드로 상징되는 '구세주의적 민중불교'로 파악한 뒤 "철저한 현실인식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으로 민중 속으로 다가가 구세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헌신적인 삶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만해의 민중불교, 참여불교의 정신은 오늘에도 더욱 힘차게 계승되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서재영 씨(동국대 강사) 는 '생활선을 주창한 선사'로서의 만해에 주목했다. 만해는 자신의 생활선을 '활선(活禪)'과 '선외선(禪外禪)'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참선이 한적한 수행처에 앉아 불꺼진 재와 같은 적멸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인간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살아 있는 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씨는 "만해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수행을 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수행공간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선불교유신론〉과 〈십현담주해〉를 중심으로 만해의 사상과 철학을 살펴본 서준섭 교수(강원대)는 "불교철학의 현대적 의의를 일찍부터 알아차린 만해는 불교를 종교에서 해방시켜 하나의 독자적인 근대 철학으로 정립하고자 한 학승"이라고 평가했다.

〈조선불교유신론〉에 나타난 만해의 계율관'을 발표한 종명 스님(의상만해연구원 연구위원)은 만해가 주장한 '승려의 선택적 가취'와 '생산노동을 통한 경제자립'은 "승단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고민 속에서 나온 계율의 중도적 적용이다"는 주장을 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문학

詩 속에 생명질서 회복 희구 절절

'일즉다' '법계연기' 자유의 다른 표현

불교

민중 · 생활불교 정신 계승돼야

독자적 근대철학으로 정립 위해 노력

오늘의 시조학회 '시조문학 어울림 한마당'

문학 강좌 · 시조창 공연 · 자작시조 낭송

오늘의 시조학회(회장 윤금초)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이 협찬한 '시조문학 어울림 한마당'은 3일~4일 백담사 일대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이번 행사는 2002 만해축전에 참가하는 문인과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해 시조문학 강좌, 자작 시조 낭송, 청소년 시조백일장, 시조창 공연, 시조문학인의 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우리 시조의 멋과 여유를 한껏 뽐낸 시조창 공연 모습.

특히 한국정가원 박종순 원장과 회원들이 선보인 시조창 공연은 흥겨운 시조가락을 배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창으로 단시조, 엇시조, 엮음시조를 시연하여 쉽고 재미있게 우리 시조의 멋과 여유를 감상하고, 시조문학의 밤에서는 박시교, 장순하, 박기섭 시조시인 등 오늘의 시조학회 회원과 전국의 시조시인 지망생 및 시조백일장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작 시조를 낭송하고 대화와 토론의 꽃을 피웠다.

시조문학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된 시조문학 강좌는 '비평가가 본 현대시조의 위상'(장경렬, 서울대 교수), '시조시인이 본 현대시조의 위상'(박기섭, 열린시조 편집위원), '현대사설시조의 역할'(김제현, 경기대 교수), '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윤금초, 경기대 겸임교수) 등으로 진행됐다. 시문학 강좌에서 장경렬 교수는 조선시대 사설시조에 담긴 풍자성과 해학성,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대한 관심 등 오늘의 시조가 알게 모르게 조선시대 사설시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조선시대 사설시조가 없었다면 오늘의 사설시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기섭 씨는 투철한 시대정신으로 당대의 삶과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고, 끊임없는 실험의식으로 새로운 시조문학을 개척하는 것만이 현대 시조의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백담사= 강유신 기자

2002 만해축전 이모저모

⊙ 만해 고교생 백일장

'만해 고교생 백일장'의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됐다.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0여명의 남녀고교생들이 문재를 겨룬 이번 백일장의 대상은 산문 '눈물로 양념한 국수'를 쓴 정유선양(경기도 성남 수내고)이 받았다. 박양은 아버지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극복기를 한 그릇의 국수이야기로 풀어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제6회 만해상

3일 열린 제6회 만해상 시상식은 독특한 이력의 수상자들이 시상대에 올라 관심을 끌었다. 만해평화상 수상자인 크리스찬 아카데미 명예이사장 강원룡 목사는 "개신교 목사가 불교재단에서 주는 상을 받게 돼 얼떨떨하면서도 불교가 '열린 종교'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앞으로 남북간 동서간 대결 종식과 종교간의 평화를 위해 만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만해상 학술부문은 강만길 상지대 총장이, 시문학 부문은 신경림시인, 예술부문은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수상했다.

⊙ 시인학교 · 야단법석 · 미술전시 등 문화 한마당

민족문학작가회의의 강원지회가 주관하는 시인학교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소설가 조정래씨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시인 이근배 · 정희성씨가 이끄는 '시창작 강좌', 시인 고은 · 신경림씨의 '시 특강' 등이 진행됐으며, 매일 저녁 '야단법석', '노지백우(露地白牛)의 밤' 등 시낭송과 미술전시, 노래가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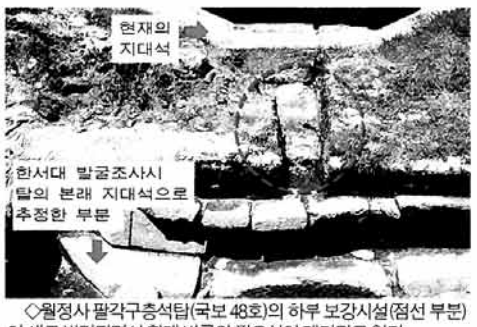
강원룡 목사 "종교간 평화 위해 만해를 스승으로"

산문 '눈물로…' 정유선 양 백일장 대통령상 수상

월정사 9층탑 옮겨 세웠을까?

현 지대석 아래서 새로운 보강시설 발견

12세기 땅 위에 10세기 탑 … 확대 발굴 필요성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의 하부 보강시설(점선 부분)이 새로 발견되면서 확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보 48호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지대석 아래서 돌과 모래, 회를 섞은 하부 보강시설이 새로 발견되면서 이 탑에 대한 의문점이 늘어나고 있다.

▷한서대 발견 지대석은 탑의 일부?

지난 5월부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을 시굴조사해 온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 · 문화부장)은 최근 현재 땅 위에 노출된 탑의 지대석 아랫부분이 다듬지 않은 요철로 되어 있고, 그 밑은 보강 시설이 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탑을 조성하면서 땅 위에 노출된 부분을 다듬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요철 부분까지는 흙으로 덮어놓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 해 한서대에서 발견한 탑의 지대석은 현재의 지표면보다 75㎝ 아래에 있다. 시기가 같다면 사람이 밟고 다닌 지표면의 높이가 같아야 한다. 한서대에서 발견한 지대석은 탑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됐던 건축물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탑의 남쪽 일부분만 파 본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지대석이 탑과 같은 팔각형인지 아닌지 여부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탑은 옮겨온 것일까? 그렇다면 언제?

조사단은 7월 24일 현장설명회에서 지금까지 탑의 일부라고 추정해 왔던 한서대 발견 지대석 아래 토층에서 12세기 동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술사학자들은 탑의 미술사적 양식을 10세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토층이 훼손되지 않고 시대별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에서 12세기 동전이 발견된 땅 위에 탑이 서 있다는 것은 탑이 현재의 위치에 선 때가 최소한 12세기 이후라는 것을 말한다. 한서대 발견 지대석이 탑의 일부가 아니라는 가정이 맞다면, 12세기 땅 위에 10세기 양식의 탑이 서 있다는 사실은 12세기이 탑을 옮겨왔을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탑 주변에 대한 확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지도위원들도 하나같이 "너무 부분적인 발굴이라 딱라 단정할 수 없다. 확대 발굴을 해 봐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권형진 기자

문화 소식

불교 꽃꽂이 사진집 '향화청'

꽃으로 장엄된 사찰 담아



불교꽃꽂이 사진집 〈향화청〉이 나왔다.

예담꽃꽂이회 조양자회장을 비롯 조봉애, 이경옥, 김경희, 박선자, 김두리씨 등 저마다 꽃꽂이회를 이끌고 있는 6명의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사찰의 곳곳을 꽃으로 장엄하여 사진으로 담았다.

대웅전 본단 뿐 아니라, 절 마당의 석등과 탑, 우물, 담장 위, 처마 끝에 이르기까지 참배객들의 눈길이 닿는 곳곳에 아름다운 꽃 공양을 올렸다. 전남 백양사, 강화 보문사, 서울 화계사 등 꽃이 있는 사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제 1기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 전수생 및 학인 모집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는 전수생 및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연수반(1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법고)다루는 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사십구재 전과정)(점안식)

전수반(2년)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전과정)

※ 전수반은 연수반 수료자거나 동등의 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함.

◈ 교 수 진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10호 보유자 박일초 스님 직강

● 모집인원 : 00명 수시모집 (팩스접수 가능)

● 매주 강의 요일

연수반 : 월 · 수 (오후 3시 ~ 5시) 전수반 : 화 · 목 (오후 3시 ~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접수기간 : 2002년 8월 1일 부터 ~ 8월 24일까지

● 개강일자 : 2002년 8월 26일 오후 3시

● 본교는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전통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우리은행 120-188157-02-201 예금주 : 이 영 숙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2-8 다원빌딩 3층(강서보건소 옆)

전 화 : 02)3665-0557 / 032)523-8067(인천) FAX : 02)3665-0546 / 032)523-8066

H · P : 011)788-2929

인천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 나비춤.

서울전수관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 장 박 일 초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붓자 용자)

승복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영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脫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면합체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당뇨 · 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하이데거의 후기사상 화엄·선학으로 이해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 김형효 지음



현대 서양철학의 성과를 동양사상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해온 철학자 김형효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가 현대사상가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사유를 화엄학과 선학의 각도에서 해석한 책을 펴냈다.

김 교수의 전작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청계)이 하이데거의 사상을 불교의 유식학(唯識學)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청계)는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을 불교의 화엄학과 선학으로 이해한 것이다. 난해하기로 소문난 하이데거의 사상을 불교의 화엄 사상에 의거해 해석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철학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난해한 하이데거의 사유를 보통 지성인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번 책에서도 가급적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空·無 개념 도입 서양정신 한계 극복
쉬운 언어로 난해성 극복 친절한 해설

그렇다면 그는 왜 하이데거의 사상을 불교 사상과 비교하는가? 1995년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하이데거와 불교 사상'이란 강의를 시작으로 하이데거의 철학과 불교 사상을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해온 김 교수는 책의 서론 '과학기술 시대에 왜 하이데거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는가?'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불교의 철학과 함께 깨닫는 정신의 초탈적 사유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하이데거를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 불교의 유식학, 화엄학, 그리고 선학에 관한 공부 속에서 하이데거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독법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근대정신이 인간의 지성과 의지로 세상을 변혁하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나,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진단하며, "하이데거는 세상은 변해지는 대상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하는 시원적인 사실이라고 보았다"고 밝힌다. 즉 세상을 바꿔야하는 대상으로 보는 서양정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원적인 사실인 무(無)와 공(空)의 개념을 하이데거가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철학연구가만 있을 뿐 철학자가 없다'는 우리 시대에 대표적인 자생적 철학자로 평가받는 김형효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벨지움 루벵대학교 철학최고연구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과 한국학대학원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 김용남 지음



"사람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받은 성(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은 자칫 정(情)에 가려지게 마련이다. 범인(凡人)도 성인도 같은 성을 가지고 있지만 범인은 정에 빠져 성을 잃고 있다. 때문에 범인은 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으로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김용남 지음, 운주사)은 당나라 말기의 유학자 이고의 〈복성서〉에 담긴 복성론에 대한 연구서이다. '복성'의 복(復)은 '이르는 것' 혹은 '닿는 것'으로, 성(性)은 천(天) 또는 천명(天命)이 우리 개개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복성은 성을 회복하는 것, 본래 성인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지은이는 유교에 있어서 당면과제인 '전체로 되돌아가는 길'은 복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이고의 복성론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교의 '天命' 회복론에 대한 연구서
"불교없인 성리학 탄생 못했을 것"

뿐만 아니라 지은이는 복성서가 성리학에 미친 영향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근거들을 들고 있다. 흔히 성리학의 태두로 일컫는 주렴계(1017~1073)의 대표적인 저술인 〈통서〉가 〈복성서〉와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불교 사상이 강하게 배어 있는 이고의 복성론이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은이는 "불교 없이는 성리학은 없었을 것이며 나아가 성리학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책은 이고의 복성론을 주제로 쓴 지은이의 박사학위논문을 좀 더 쉽게 풀고 설명을 보탠 것으로 이고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복성사상과 불교의 관계, 복성론의 사상적 특징, 성리학의 토대로서의 복성론, 복성론의 성격과 성리학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값 1만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관심 법상 지음

체험으로 녹인 '佛法' 일상 언어로 담아



인생을 살다보면 결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군법사로 있는 법상 스님(비룡사 주지)은 최근에 펴낸 책 〈관심〉(무한)에서 마음을 맑게 비운 가운데 한마음을 일으키면 마음 내는 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삶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특히 법상 스님은 "무소유가 바로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라며 "텅 비어 있을 때만이 진정 꽉 찬 충만의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스님 자신의 시각으로 재조명한 이 책은 '집착은 놓고 인연은 받아들인다', '함이 없음을 행하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급하지 않아야 수행자다' '무소유가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다' 등 한 주제가 바로 하나의 법문을 이루고 있다. 그 내용 속에는 경전말씀, 스님의 단상, 체험담 들이 골고루 녹아 있어 머릿속이 복잡할 때 술술 잘 읽혀질 것 같다. 또 '지혜롭기', '평화롭기', '자유롭기' 등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자신이 필요로 하는 키워드에 맞춰 언제든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넷'에서 '젊은 법사의 불교이야기' 칼럼니스트로, 사이버 생활수행도량 '목탁소리'에서 신행상담을 한 경험자답게 생활 불교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편안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값 7천원.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오래된 미래—라다크로 부터 배운다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까"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마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노동을 하고 그 땀의 대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 히말라야 고원에 자리 잡은 '작은 티베트' 라다크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말이나 '많은 물건이 있지만 풍족하지 않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75년 인도 정부의 개방과 개발정책으로 라다크는 급속히 서구화되었고, 라다크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행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개발을 해야 돼요"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 스웨덴 출신 언어학자 노르베리-호지가 16년간 라다크에서 살며 관찰한 그들의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 생활 방식을 소개하고, 서구화를 통해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찾고 있다. 만족과 평화를 알던 라다크 사람들은 많이 배울수록 그들 사회로부터 멀어져갔고, 지은이는



작은 티베트 '라다크'의 전통·환경보호운동 전세계 커다란 반향

라다크를 되살리기 위해 '라다크 프로젝트'란 운동을 전개한다. 아름답고 인간미 넘치는 전통을 지키면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라다크를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1991년 '에콜로지 및 문화를 위한 국제 협회'로 발전한 이 운동은 전세계 생태주의자들이 참여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을 읽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라다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크게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문제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며 나의 문제이다.

1999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2001년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꾸준히 읽히고 있다.

21세기의 신과 과학 그리고 인간

리셀 스테나드 엮음 / 이창희 옮김



21세기 최첨단 과학자들은 신(神)을 어떻게 생각할까?

유명 과학·신학자 50여명의 담론

세계적인 유명 과학자와 신학자 50여명이 '신과 과학의 관계'를 솔직 담백하게 적은 담론서 〈21세기의 신과 과학 그리고 인간〉(두레)을 보면 더욱더 화합의 관계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캘리포니아대 산타크루즈 분교 물리학 교수인 낸시 에이럼즈와 조엘 프리맥은 "아인슈타인이 과학의 진보가 성취되는 순간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존재 속에 드러난 합리적인 외경심 즉 범우주적 종교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힌다. 또한 웬첼 반 후이스텐 교수(프린스턴대 신학과)도 "일부신학자들에게 과학과 종교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갈등과 대립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며 "진화인식론은 과학과 의미있는 대화를 모색하는 신학자들에게 좋은 도구를 제공한다"고 적고 있다.

이 담론에 참가한 50여명의 필자들 대부분이 물리학자, 천체물리학자, 양자물리학자, 생물학자, 진화론자,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어서인지 신과 과학의 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놓아 읽을 거리가 풍부하다. 값 9천8백원.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과학자들의 40% 이상이 신을 믿는다고 대답했으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과학과 종교가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화합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3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4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5	영가현도	우 룡	효 림
6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 정	예 문
7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8	I AM THAT	프리드먼	탐 구 사
9	시선	원 성	이 레
10	붓다의 가르침과 꼽정도	전 재 성	민족불교수호협회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한국 농·중·소(주) CGN.co.Ltd

농·수·축·임산업, 식품가공업 및 가정 건강생활 필독서!!
질병을 고치는 책



노벨상 3회 수상으로 입증된 목초액성분의 놀라운 효능
제1장 : 목초액이란 / 제2장 : 목초액의 유래 / 제3장 : 목초액의 효능
제4장 : 목초액의 활용법 / 제5장 :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신비의 목초액
◈ 도서 구매자에 한해 매주 월~목 오후 2시~4시 '건강과 풍요로운 생활'을 주제로 하는 저자 무료공개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나무 간질환 · 당뇨병 · 암 · 무좀 · 각종 피부병에 놀라운 효과!
목초액이 병을 고친다
현재 MBN 매경TV ch20 "류창열의 건강특강"에서 명강의 중
최신간 영풍문고 7월 건강부문 베스트셀러 15위!!
심보를 고쳐야 병이 낫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마음건강학
마음이 병을 부르고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
飮食과 養食에 의해 건강과 질병으로 변하는 과정
음식 → 입 → 마음 < 부정 → 부패 → 독소 → 탁한 피 → 면역기능 저하 → 세포질병, 노화촉진 / 긍정 → 소화 → 영양소 → 맑은 피 → 면역기능 상승 → 세포건강, 젊음유지
값 8,500원 / 값 13,000원
저자 소개
목초액 · 심성교정 · 환경보존 연구가 / 방송인 / 사회사업가
방송출연
● 인천방송(ITV) "도전건강백세" 36회 방영
● cable 넷(정보통신) 케이블TV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킹과의 만남"
● ch26 케이블TV "건강특강" 4회방영
● MBN 매경TV ch20 "OK 한방스페셜-사람 살리는 목초액"
방송출연중
● MBN 매경TV ch20 "류창열의 건강특강"
● 이벤트방송 "류창열의 삶 빛 나는 세상"
● 지서 "심보를 고쳐야 뵈이 낫지" 外 다수
저자 건강특강 · 청강무료
● 월~목 14시~16시(13시 45분까지 입장)
도서는 전화 주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목초관련 제품 문의 및 주문도 받습니다)
전화 02)516-8939 팩스 02)516-8923 / 계좌번호 : 국민은행 754-21-0439-180(예금주 : 김예영) /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판매합니다.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한국 농·중·소(주) CGN.co.Ltd

결제 시스템과 인터넷 폰이 하나로-
스마트 단말기
인터넷 전화 + on · off line 결제단말기 + 콜링카드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 단말기에 만족하십니까?
해외 및 지방에 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콜링카드는 사용이 불편하시다구요?
편리한 서비스는 물론 수수료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사용기간 동안 직접 한번 느껴보십시오.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간의 무료통화
핸드폰 · 시외전화 20~50%할인



수익모델
특허 : 스마트 단말기 수익종류
▶ 신용카드결제 / 전자화폐 충전 및 송금 / 스마트 폰(대출) 서비스
▶ 세금 ·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지급 / 신용카드 단말기 통신중계
▶ 항공권, 철차, 버스 등 교통권 예약 서비스
▶ 영화, 연극 공연 및 각종 티켓 판매 / 복권 · 마권 등 특수 서비스
▶ 영화 · 만화 · 전자책 등 컨텐츠 판매
스마트 폰
▶ 스마트 폰 ↔ 스마트 폰 : 무료 통화 서비스
▶ 저렴한 통화 서비스(할인된 요금에도 수익배분)
☉ 스마트 폰 → 국제 전화(약 90% 할인)
☉ 스마트 폰 → 휴대폰(약 20% 할인) · 시외 전화(약 50% 할인)
▶ 특허 : 무료 원격 전화 서비스(미국 가입자 → 미국 원격번호 → 스마트 폰)
스마트 콜링카드
▶ 국제 · 국내 전화, 휴대폰, 공중전화에서 사용(후불 · 선불 · 예약제)
▶ 특허 : 원터치 국제 전화 서비스(휴대폰 → 원터치 → 등록한 외국 · 시외 전화 연결)
▶ 가상번호 국제 전화 서비스(모든 국내 전화 → 시내 전화(가상) → 외국 바로 연결)
on · off line 전자상거래
▶ 목초액 관련 제품, 유기농수축산물 및 첨단 가전제품, 최고의 IT제품을 최저가 공급
12개의 특허 비교할 수 없는 첨단 기능과 저렴한 통화료!!
수익성/편리성/설치대상
지사 및 대리점 수익구조
▶ 스마트 단말기 : 각종 금융 결제 수수료 및 중계 수수료, 판매 수수료
▶ 스마트 폰 : 전화기 임대 및 설치 수수료 수익
▶ 스마트 콜링 카드 : 판매 수익 · 통화료 수익
▶ 전자상거래 : 소비제품 판매 및 반복 구매 수익
▶ 가맹점 수익 : 전자화폐 수수료 및 포인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점수가 쌓인만큼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 소비자 수익 : 국제 전화는 기존 통화료의 1/10만 내시면 됩니다.
휴대 · 시외전화는 20~50% 저렴합니다.
▶ 지사 및 대리점 수익 : 단말기 임대 및 설치 수수료뿐 아니라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화 수수료까지 챙기십시오.
편리성
▶ 금융 결제 단말기 · PC · 인터넷 폰 · 일반 전화 동시에 사용 가능
▶ 원터치 기능 : 음성안내 없이 바로 연결됨
▶ 인터폰 기능 : 그룹 회원간은 전화번호를 3자리만 눌러도 통화 가능
설치대상
▶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한 모든 영업소
▶ 국제 및 시외 전화를 많이 쓰시는 분
▶ 회원간 통화량이 많은 그룹 및 단체
▶ 재택근무 하시는 분
가입신청 받습니다.
부업조 지사장님을 모십니다
문의 전화 : (02)516-8939
◈ 교육센터 및 영업사원 모집 · 교육센터 : 전국 국회의원 출마 지역 단위 1개소(247개) / 단말기 보급 영업사원(대학생 아르바이트 / 주부사원 환영)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

제2회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연수

세계불교 중심지이며 불교의 극락이라 불리는 미얀마 아무미따지 대학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과목 – 백침술(100%확실하게 살빼는 속효 법)
정통사주학, 관상학, 독성법,
비방단침술, 특수기공도통법
❖ 지원자격 – 학력, 나이 관계없음(선착순 25명)
❖ 제출서류 – 등본2통, 사진5장, 여권, 비자, 지원서1통
❖ 접수기간 – 양력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일정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양력 9월 1일 ~ 6일 까지(5박6일)

전화 031)867-4131 , 011-214-4135 , 018-370-4133

MYANMAR, YANGON

yangon office : 5b 3b floor, kamayut, townshlp 2ayarthlrl rd,

아우미따지 불교성도대학 한국분원 사무국

구담사 양력 9월 8일

봉 태아 〈낙태, 유산〉 영아 영가 49일 천도재 행

증명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저희 **구담사**에서는 태아 영가 천도 도량으로써 매년 49일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태아 영가 천도재는 잃어버린 태아(낙태, 유산)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다. 천도하는 의미는 그 영혼이 남은 가족에게 악연을 맺지 않기 위함이요, 참회하는 마음이다. 태아 영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회 기도로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기도로 입장소멸과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악연을 쌓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의미에서 낙태아 천도재를 동참합시다.

기도방법

■ 태아영가 기도 방법

· 스님하고 49일간 영가 천도재 동참하여 기도한다.
· 사경 및 주력으로 기도한다.
· 부부가 함께 참회기도 하는것이 좋다.
· 태아영가는 조상영가와 같이 천도재는 하지 않는다.
· 기도할때는 아기야 미안하다고 하고 참회기도 한다.
· 최소한 7회이상 태아영가 천도재를 하는것이 좋다.
· 기도할때에는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지극히 기도한다.
· 준비물 : 분유(우유), 사탕, 과자, 쵸코렛, 쵸코파이, 장난감, 신발, 양말 등등

◉ **입제일** : 양력 9월 8일(음력 8월 2일 일요일)
◉ **회향일** : 양력 10월 27일(음력 9월 22일 일요일)
◉ **태아영가제사** : 입재(9월 8일) 3재(9월29일)
5재(10월13일)
7재(10월27일) 지냄
◉ **대중교통안내** : 동서울 터미널 → 일동
상봉터미널 → 연곡4리 하차
수유리(4호선) → 일동 → 구담사
◉ **구담사 버스 운행** :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장소 : 오전 8시까지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입구(정일관광)
◉ **기도금** : 49재 기도 동참금 (10만원)
◉ **위패비** : 태아영가 1위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 217-01-0339-914
농 협 : 225050-56-033370
※ 금년 대학 입시생, 취업, 사업지는 기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태아영가 기도 접수만 받습니다.
※ 지방신청도 가능하오니 위패 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 031)533-2855 팩스 : 031)532-2441
총무보살 마하심 : 02)446-6101,
H.P 011-391-6101

대한불교 조계종 **구 담 사**
◆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達摩西來一字無
全憑心印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沾尖乾洞庭湖
千經萬典不如心
昻明人中師一点

天聞道人 · 泰日大師 作品

통일부장관상수상

동양미술 대전특선 및 동경 국제서화대전 준대상 당선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만병의 근원인 비만증을 이기는 법회에 동참하시여 체중감량 하소서!

웅조 달마상의 비법은 새태양의 법도로 흥한터, 수맥차단, 초상, 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학업, 진학, 고시 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 달마도상을 모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달마종의 근본 법도와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워 만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본 종단 달마종에 입문하시고 본 종단에서는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권 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心

천년에 한번드는 서성명성의 우담바라의 비밀과 동방의 대운으로 15진주 대도통군자을 배출하며 삼라만상 영과혼 일체창생을 얻는 진인경신도통 및 백중대제로 세계평화 종교통일을 역어갈 무위불아천법으로 상통개태학 불로의 칙령으로 자성의 법촉과 원명의 육멸육법과 상통 천문하달 지리의 진여 성명으로 천지인을 통철하는 진개의 무자진경 치상승법으로 진묘한 천기의 도리를 얻은 단 한번의 기도에 그대를 초청 하노라. 이 득도로써 生과死를 제도하고 국가와 민족에게 이바지하는 도통군자 되소서. 이세상의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무자진경의 스승은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대도통군자 15진주. 동방의 대운으로 生과死의 창생을 얻는 백중절 및 진인경신도통대법회에 그대를 초청합니다

제71회 도통군자들에 천장지비의 비법이 임오년 8月19日子시와 20日(음7月11, 12日) 오시에 다시없는 해인도법 잣대를 얻어 천안통에 도전하시어 신비의 초능력의 잣대를 얻어 지구촌의 이그러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 병 육신의병 마음의병 정신의병 잡신의병을 제도 할 대 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하늘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짓거리다가 허공방망이로 한대맞고 태산같은 병마와 동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인 척 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새천년 미륵 달마도법의 요즘의 시대는 팔조신장이 지구촌을 삿삿히 인과법으로 중음신과 잡신(수마,인마,병마)에 극성으로 병명도 없이 우환, 질병, 각종 암의 고통으로 겁살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십년할 공부를 단 한번의 경신입문으로 말문과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통하여 건강수명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초능력으로 만법을 다스릴 진인경신도통에 입문하여 소원성취하시고 인류 스승되소서. 진사성인출, 오미낙 당당의 비밀장과 **만병의 근원인 비만증병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얻어 건강수명 장수 하시고 도통군자 되소서.

그대는 왜 수행을 하는가..! 마음에서 죽고사는 것을...

● 입제 : 8월 19일 월요일(해시) ● 해제 : 20일 화요일(해시)
● 동참금 : 1박 2일 5만원, 점식제공 농 협 029-01-167866
하나은행 157-015402-00108 곽태일(한영) FAX : 02)821-7768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일반버스 85,25,95,26,303,142,26-3,102번 모자원고개 하차.

웅조미륵 진인경신도통회장
사단법인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교육원 일심선원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향산스님을 춘명문도회에서 제명한데에 대한 반박문

문도회라하면 제자들이 스승의 유훈을 받들어 수행정진에 매진하고 형제로서의 우의와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며, 나아가 서로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명문도회 정철환회장과 혜정총무 등이 향산 전북종무원장스님을 춘명 문도회에서 재명한다는 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은 춘명문도회는 물론 불교계 전체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는 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춘명문도회 뿐 아니라 대부분의 태고종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향산큰스님은 10여년이 넘게 춘명문도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춘명 문도회가 오늘에 이르도록 육성발전시켜온 큰스님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큰 스님을 몇몇 문도들이 문도사찰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감언이설로 회원들을 설득하여 제명서에 날인을 받고 모함성 제명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여 춘명 큰스님과 춘명문도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현 춘명문도회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 하고자 하는 바이다.

1. **춘명문도회는 향산종무원장스님께서 춘명큰스님을 핍박하고 문도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문도로서 본분을 망각하였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힐 수 있는가?**
2. **2001년 6월 전북교구지방종회 전북종무원장 선거에서 현 원장인 유향산스님과 현 총무원부원장 성수종스님이 출마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15대 7이라는 압도적인 표로 유향산스님이 종무원장에 당선됐는데도, 남파스님이 동생에게 대를 이어 종무원장을 하도록 했다고 모함하여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종회의원들을 우롱하고 전북종무원과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3. **전북종무원 청사내에 있는 보문사 주지는 지금까지 종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를 맡아왔는데 유향산종무원장스님을 보문사 임시 관리인으로 폄하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4. **춘명문도회 소속의 대다수스님들께서(15명) 향산스님의 제명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5. **향산문도회는 오늘의 춘명문도회를 존재하게한 향산종무원장스님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지금까지 춘명문도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심하시는 향산종무원장스님의 속 깊은 뜻을 지지하는 바이다.**
6. **그리고 춘명문도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스님들은 부처님 전에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한국불교의 발전과 춘명문도회의 미래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사퇴하기 바란다.**

한국 불교 태고종 전라북도 향산문도회 일동

무일 무진 무공 무착 무각 무성 무신 무장 무행 무상 무곡 무관 무영 무인 무애 무선 무등 무비 진관 진경 관음행 대자행 보현행

과거칠불 석가모니불의 진정한 법맥(밀법)

1. 한국의 불교(佛敎)는 불법(佛法)이 아니다.
2. 화두(話頭), 참선, 불교의식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3. 포교활동, 자원봉사는 부처님 법이 아니다.
4. 해원금강밀법을 수행해야만이 해탈. 성불(아라한)할수 있다.
5. 재가자, 출가자, 여자, 남자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
6. 석가모니불 당시에는 오만명 이상이 아라한도를 성취하였는데, 지금까지 한국에는 아라한도를 성취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술, 고기, 담배를 먹으면 결코 성불할수 없다.)
7. 점안식(마정수기)은 본래 불상(佛像)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現存)하는 부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불안(佛眼)을 열어주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불법(佛法)은 교리(경전)가 아니며 무형무상(無形無相)으로 일종의 힘(力)이다. 반드시 현존하는 부처님으로부터 점안식(點眼式)을 통하여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밀법(密法)을 전수(傳受)받아야만 해탈. 성불할 수 있다.
8. 설산 히말라야 과거칠불.석가모니불 법맥은 해동 대한민국에 살아있다.
9. 해탈. 성불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일세해탈(一世解脫)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오십시요.

※ **「능엄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법시대에 고기먹는 출가승(出家僧)들이 비록 마음이 열려 삼매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대나찰(大羅剎:귀신)로서 고기먹은 과보로 임종후에 반드시 생사고해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들은 삼계를 벗어날 수 없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대승정사**

연락처 : (02) 391-7032

특허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외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백가지 음식 차려야 하는지

문 불교를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신도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백종날 백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위해서 백 가지 음식을 모두 차려야 어머님이 좋아지실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뜻으로 표현하신 것인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극락왕생하실 수 있으려면 백종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중 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자식들을 기른 그 어머니가 손자를 봤으니 얼마나 손자가 귀여울 것이며, 아들들을 기르느라 얼마나 손발은 다 터지고 못쓰게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홀연히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절에 나갔습니다. 절에 나가서는 부처님 전에 시주도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저 쌀 서너 되 짊어지고 올라가고, 또 무슨 음식이라도 새로 나는 거 있으면 깨끗하게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런 말만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은공을 다 갚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처님! 어머니의 은공을 꼭 갚게 해 주소서." 하고선 항상 그렇게만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지고 내려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느 스님께서 옆에 턱 앉으시면서 "더워서 식혀가느라고 이렇게 앉았느냐" 고 하시더랍니다.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참, 자네는 효성이 지극한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모르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자네는 자네 턱 밑에, 자네를 사랑하던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당신 마음에 있고, 어머니의 은공을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 마음에 있으니, 어머니도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이고 당신 마음도 바로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이니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마음 안으로 항상 지켜보라." 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 명경에 당신 어머니가 비칠 때에 바로 당신은 어머니의 은공을 갚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항상 '내 마음 안의 명경이 어디 있어서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저 자나깨나 마음에 관했답니다. 마음의 명경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좀 뵙게 해 주며, 은공을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명경이, 정말 마음의 눈이 뜨여서 보니까 어머니가 바로 자기네 집 연못에 큰 구렁이가 돼서 자기들을 지켜 주고 집을 지키고 계시더랍니다. 그 연못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님이 그 모습을 벗지도 못하신 채 여기에서 그렇게 계시다니,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그 모습을 이렇게 쓰고까지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계시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냥 연못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둘이 돼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한마음 속에 어머니도 계시고 나도 있고 모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가 나를 봤으니 나는 인제 한이 없다. 너는 너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길을 밝게 인도하기를 바란다. 네 마음 속에 명경이 있는 거를 봤으니 나는 인제 훌연히 떠나도 손색이 없으리라 믿는다. 너를 믿고 이젠 떠난다." 하면서 말이 끝나자마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너는 므습이 있는 것이요, 나는 모습을 벗느니라. 이 생사의 교차로에서 돌아다보지 마라." 하는 목소리가 그냥 요란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서 엎드려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간 곳이 없고 그렇게 요동치던 날이 환하게 밝으니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춤을 추었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백 가지 음식을 해 놓기보다는, 왜 백 가지만 해 놓겠습니까? 부모의 은공이라는 것은 백 가지 해 놓고 백 가지를 다 스님들한테 해드린다고 해도 그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욕심이 많아선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떡을 둥글게 하나 해다 놓고, 이 속에 천 가지 만 가지, 백종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돌아가신 부모나 죽은 자식이나, 스님네들이나 유생 무생이 다 먹고도 남을 떡 하나를 해다 놓는다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으니 그 속에 먹고 싶은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름이 그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칠보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한마음이 그쯤 된다면 어느 누구 덜 먹었다 더 먹었다 할 게 없이 두루두루 몽땅, 내 부모 네 부모 따로 없이, 내 자식 네 자식 따로 없이 전부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니 예전에 살던 대로 여러 가지 차려놓고 그 의식을 잡아두지 말고, 칠석날에 내가 닦아서 백종일에 넓고 광대무변한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할 수 있게끔 그 의식이 확 트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일 것입니다.

잘못을 고치게 하려면

문 스님, 저는 올해 대학에 들어와 청년회에 소속되어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 법우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국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관직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도탄에 몰아 넣는다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걸 '아, 저렇게 보는 것도 내 탓이지.' 하고 분별하는 자기의 문제로 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과감히 투쟁을 하고 목숨을 버리면서 까지도 옳은 법을 지켜 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워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에도 놓는 마음은 가지면서 그것도 역시 자기 탓을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침 청하옵니다.

답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놓아야 한다는 것은, 놓는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놓다보면 상대가 곧 나라는 것을, '저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탓이지' 가 아니라 '나로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나' 입니다.

진짜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할 때 갖가지로 오는 것마다 모든 것을 일체로 돌리는 것입니다. 일체 내가 하는 건 다 거기서 하는 거다 할 때 일체가 놓아지는 거죠. 오는 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주인공이 하는 거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형성시킨 것도 그놈이고,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그놈이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다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봤을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되, 유하고 너그럽고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림으로써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율이 100%, 즉 말하자면 10%나 20%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100%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르고 말을 하면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전자에 그랬지." 이렇게 봐주는 거죠.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거쳐보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렇게 말을 해야 그쪽에서 반감을 갖지 않으니까 스스럼없이 서로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움죽거리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움죽거리게 되자 욕심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좇아서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을 그쪽으로 풍족하게 줄 때에 바로 거기에서 그 풍족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유순하고 너그럽게 마음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문제가 순리대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둘 아니게 공부를 해나갈 때 사람들을 접해가면서 많이 배웠지만, 짐승을 건지려고 할 때 내가 짐승 속으로 들어가서 짐승이 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짐승들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철저하게 느낀 겁니다. 토끼가 막 뛰는데 얼마나 빠른지 몸으로 따라가면은 그거는 못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끼가 된 겁니다. 내가 토끼가 되니까 토끼가 가다가 멈추더군요. 그리고 돌아다보고 내가 가서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어떤 경우던지 무조건 상대방을 탓하는 마음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그것 또한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둘 아니게 응해서 해결해야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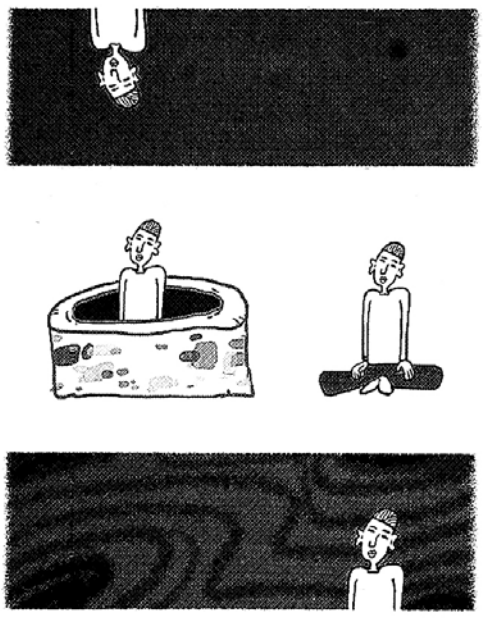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상대 탓하지 말고 내 어리석음 탓해야

죽은 세상에 들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맛볼 수 있어

"칠석날 내가 닦아서 백종일에 한자리 할 수 있게끔 의식이 트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

아상을 여의려면…

문 스님, 자신의 아상을 어떻게 죽이나요. 아상을 여의고 구경경지에 이르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노릇을 하고,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가 부르면 금방 자식 노릇을 하듯이,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서 속에서 찰나찰나 바뀌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찰나찰나 바뀌어서 돌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응용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도요, 정신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들만 중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라는 것은 딴 세계에서도 살고 외계에서도 살고 있어요. 우물 안의 생명들만 생명이 아니라 딴 바다에도 생명이 있고, 딴 세계에서도 살고, 딴 외계에서도 살고 있어요. 또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어요. 조끄맣게 봐서는 안돼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넓혀져야 넓혀진다는 거지요. 내 몸 속에 있는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딴 사람한테 통신이 되고 제도가 될 수 있겠어요. 내 몸 속에 모든 생명들의 의식들이 자기 마음을 따라서 모두가 이끌어줘야 되고 한 생각을 하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 바로 조복이고, 그것을 항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쑥 나만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지를 않아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무 많아서, 천차만별로 내가 많아서 내가 없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의식들과 더불어, 생명 모습과 더불어 같이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첫 번 째도 죽어야 하고, 두 번 째도 죽어야 하고, 세 번 째도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지요. 나라는 걸 세우지 말고, 아만 아상을 세우지 말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야 내 몸 속에 있는 의식들도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진 거니까 잘했다는 것도 나고 못했다는 것도 나요, 욕을 먹는 것도 나요, 맞는 것도 나요, 모두가 나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억하지 말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지말고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을 탓해라, 그래야 만이 죽은 세상에 들 수 있고, 죽은 세상에 들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이 겁니다. 관 속에 들어가야 관 속의 이치를 안다는 말입니다.

제행무상의 의미

문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제행무상'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체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어떤 분이,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의 뜻은 세상에 항상 있는 법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도 그렇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했기 때문에, 공한 것도 공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본래는.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부터 알고 믿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에 맡겨 놓고 내 마음을 증득해서, 즉 말하자면 정신적인 과학, 정신적인 생활, 정신적인 문화 문명이 발전이 됨으로써 전체가 화합 단결해지고 또는 경제난에도 허덕이지 않을 거고, 우리 지구가 수명이 짧아도 재료를 다 끌어 잡아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미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이, 그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한마음 속에서는 요 생각 조 생각, 요런 말 조런 말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주 법판을 다 싸안아도 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전체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공기를 저장을 했다가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내놓듯이 그렇게 서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면서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일체가 다 규합이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규합이 돼서 너와 나가 없이 돌아가는 것을, 즉 말하자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름해서 주인공이지 없는 것을 뜻합니다.

똥누러 갈 때에 '똥을 눠야 하나? 안 눠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똥 마려우면 그냥 변소에 가서 똥누듯이, 용도에 따라서 생기면 생기는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수행의 첨단의 길입니다. 되돌려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했든 잘했든 자기네들이 하고 있지 딴사람이 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못하든 잘하든 망하든 흥하든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나는 심부름만 했지 주인이 다 한 거로구나.'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으십시오. 주인과 심부름꾼은 둘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되 맡겨놓으면 벌써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유하게 돌아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러한 여건이 실천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이 참선이다 하는 것은, 나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맡겨놓고 되돌려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기 때문니다. 참선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겨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되돌려 놓고 지켜보고, 또 잘되는 건 감사하게 돌려놓고, 안되는 게 있으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믿음으로 되돌려 놓는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극적인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머님 병환 차도 없어…

문 저는 82세의 노모를 모시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61세의 아들입니다. 수년 전부터 모친은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오늘도 불편한 모습을 보이시는 어머님 모습을 보며 글을 올립니다. 한마음으로 관을 열심히 하면 어머님 머리를 맑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관하는 법도 일러드리고, 법문도 들려드리나 집중하시질 않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마음공부하고 있으나 부족함이 많아서 어머님의 병환은 차도가 없습니다. 스님!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어머님의 병환에 도움이 되고 불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침 간절히 기다립니다.

답 예전에 어느 분이 5층 계단을 올라가서는 요만하면 족한 것을 그렇게 올라올 때 애를 썼다고 하고, 또 내려와서도 요만하면 족한 것을 내려올 때 그렇게 뒤뚱거리고 애를 썼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요만하면 족한 것을 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인데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워도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야 어려움이 없다는 얘깁니다.

부모를 모시는 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돌봐드리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집에서 줄창 모시면 아주 힘들다고 하겠지만 그냥 하루 모시고선 계단 하나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모신다는 생각 없이 또 그냥 모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깐 그 분은 지루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한다는 생각도 없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면 통신처가 없어집니다. 그러고 자기 주인공이 없습니다.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조상님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고생 안 시키고 살게끔 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인공은 보디가드처럼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뭐가 안된다 할지라도 주인공에 항상 관해라." 한다면 자손들도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요.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산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11)696-8500

법납 5년된 학승입니다.
(비구)서울 · 경기지역에 부전스님을 원합니다
제사, 천도재, 각종불공의식, 역학가능
011)9181-9743

공양주 보살님 '급' 모십니다
(처사님) ▷55~60세
011)483-5639
043)832-0329

산세수려한 조용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 처사님들은 연락 바랍니다.
052)254-2427
052)254-51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부안 변산 산도
063)583-7281
063)583-7584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혼을 못한 부처님을 모시는 40대의 법사입니다. 불심으로 도반이 되어 평생함께 할 30대의 여성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61)783-5383

사찰 사무원 구합니다
041)673-3222

심야전기 온돌난방
▶ 축열식 심야전기 히트온돌난방(M.I CABLE)
▶ 축열식 전기 온수기, 온풍기, 보일러
▶ 온수 바로바로 히팅케이블 보급 시공
스노우멜팅 주차장, 출입구, 언덕, 안전도로
동파방지 및 히팅케이블 냉온수배관, 송유관, 유체라인 등의 보호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338-0400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대원사 7기 불교기본교육
불교입문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정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이번 교육과정에 관심있는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내용 : 사찰예절, 불교일반상식 기본교리, 신행방법 등
◆ 개강 : 8월 20일 화요일(주, 야간반)
◆ 위치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 문의 : 대원사 02-404-1374

산세수려한 도량에 복 지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공양주 보살님 행자님 모십니다
041)566-6301
041)566-0722

구 인 공 고
종무소 사무원 여 1人
법당보살 1人
조계산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061)754-5247
061)754-5953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업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청운역학원 02)723-7449 / 011)9638-8229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6)857-450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 종교부지 : 97평, 대지 : 94평
● 법당 : 목조건물 15평 지장전 목조 1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1억 5천(절충가능)
043)853-477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근교 큰 저수지 뒷마을
● 대지 100평 건평 23평
● 가액 : 4천 9백만원
017)803-7890
054)252-7749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 총 420평. 임법당 30평 산신각 4평 요사채 식당 1층 53평 2층 40평 다중주택 2층 40평(공사중)
● 개인소유, 종단에 가입안되었음
● 가액 : 1억 2천만원
● 비구니스님모십니다.
011)345-3323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부평 대로변 2층 45평
● 전세 : 4500만원
시설비 권리금 : 2000만원
032)547-2992

역학풍수지리강좌
■ 역학 : 사주초급, 중급, 고급반 대운과 용신법
■ 양택 : 풍수 인테리어, 음양오행, 길흉화복법
■ 음택 : 패철법, 실전감정법, 명당답사
본협회의 서적과 패철 교보문고, 영풍문고 절찬 판매 중
자격증, 회원증 발부 오전, 오후반 수시 모집 中
각 시 · 도 지부모집 http://www.ps21c.com
사단법인한국자연지리협회
☎ (02)929-1188, 922-1553
지하철 1호선 제기역 1번 출구 바로 앞 금성빌딩 2층 203

행 자 모 집 [남]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1. 도심사찰의 신기원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생, 7만의 동문신도
2. 민주적 교육에 의한 능력을 갖춘 수행자 배출 목표
3. 수계 후, 모든 지원함.
4. 행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감포분원의 산중 사찰에서 기거할 수도 있음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우학(주지 겸 학장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www.TVbuddha.co.kr
행자원 011)9852-0075 [T.053)474-8228]

사찰(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울산 1동
● 전체 평수 약 330평
● 전통 유치원
● 시내 중심가
● 덕림산이 주위에 있음
● 가액 : 7억 전세가능 : 2억
011)603-84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시내에서 5분거리
경관수려, 고속도로 진입로 가까움
● 평수 : 108평
● 가액 : 8백 오십만원
016)589-992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 평수 : 1800평(일부 종교부지)
● 법당 : 12평(단청필)
● 요사채 : 23평
● 특징 : 앞이 강이고 옆 계곡에 물이 철철 흐름 소나무 숲이 우거짐
● 가액 : 1억 2천만원
051)208-9966/294-0828
011)551-17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수도권 (신도시 중심상가)
● 규모 : 건물 7층 160평, 대형포교당
● 전세 : 1억 8천, 시설비 1억 7천, 층 : 3억 5천
● 가액 : 3억(답사 후 절충가능)
011)9183-8993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6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21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밀양	• 위 치 : 경기	• 위 치 : 춘천
• 법 당 : 20평	• 법 당 : 10평	• 법 당 : 10평
• 요 사 : 70평	• 요 사 : 35평	• 요 사 : 35평
• 부 지 : 20,000평	• 부 지 : 160평	• 부 지 : 6,300평
• 가 액 : 2억	• 가 액 : 1억 5천	• 가 액 : 3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안내
● 동작구 상도 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 1층 28평 2층 21평 지하 5평 합 : 56평
● 부처님 네분 모셔져있고, 후불탱화, 영단, 부처님 단청 갖추어져 있음
● 가액 : 5억 7천만원
011)722-0302
02)815-0302

사찰안내
●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법당겸 요사채 50여평 산신각 7평
※ 종중땅임(400여평 사용) 절앞소방도로 확정되었으므로 내년이면 차량진입이 가능
심야보일러 온수보일러 설치
● 가액 : 9천 5백만원(절충가)
011)9770-6598

암자용도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 대지 : 18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0평
● 산신각 : 15평
● 가 액 : 6억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소재 지하철 5분 거리
● 법당 : 40평
● 보증금 : 1,000평, 월 75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역사깊은 도심 포교당 임
● 위치 : 전북 익산 소재
● 대지 : 140평
● 법당 : 35평(2층)
● 요사 : 40평(1층)
● 양도가 : 2억 3천
● 역사깊은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토굴 및 사찰터
● 경남 하동군 화계면
● 대지 220평
● 건평 30평
● 신축 전통황토한옥 두채
● 준농림지 605평
017)356-941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영천 롤게이트 부근) 교통편리
● 대지 : 약 100평, 건물 50평 단층한옥(새로수리함), 임법당(즉시 법회 가능) 방 3개, 창고 1
● 특징 : 마을 끝집에 야산을 끼고 있어 토굴을 겸해 포교당으로써 적절함
● 가액 : 3500만원
054)337-9916
011)9727-9935

조용한 풍광에 절 원하시는 분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옆에있고 앞에는 큰 냇물이 사철 흐르는 유원지
● 대지 : 200평 ● 전 : 700평
● 방 2개, 창고 1개
● 가액 : 7200만원
054)262-667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평수 : 땅 대지 200평 법당(콘크리트 기와) 28평 산신각 2층 5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5평, 대지 공양간 5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16)9294-7025

사찰 양도 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렸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귀 대창불교건축 귀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 찰 부 지 안 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천
● 대웅전 : 28평
● 요사 : 35평
● 산신각 : 10평
● 대지 : 600평
● 가액 : 2억 6천
011)240-88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동시장 인접지역 종합병원 옆
● 넓이 : 약 40평
● 시설 : 법당 산신 칠성각
● 교통 : 버스정류장 앞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9184-7629
급히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 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덕천로타리 5분거리 (구포시장 내)
● 평수 : 60평, 방 4개 삼존불, 지장보살,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보증금 :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3000만원
055)386-7463/016)355-4264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주
● 대지 : 130평, 법당 : 30평
● 산신각 : 5평 요사채 : 60평
● 가액 : 2억 3천만원
063)291-7532
017)336-7523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태화 로타리 경남은행 뒤편
● 평수 : 3층 50평, 법당, 주방 방, 각 1개
● 시설 최상급 삼존불 봉안
● 보증금 12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6)750-4394

포교당 안내
● 위치 : 구리시 아파트, 주택요지, 교통편리(5층건물 5층 주차장, 옥상 사용가)
● 시설 : 특 A급(6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수미단, 삼존불, 신중, 칠성 영가단, 음향시설)
● 임대료 : 5000만원/110만원 (시설비 약간)
011)9087-0426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양시내 2층
● 평수 : 53평
● 법당, 주방, 방 각 1개
● 보증금 1700 월 60만원
시설비 : 내방 후 절충
011)9135-8229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 ~ 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 3동
● 건물 : 1동 통나무집 1층 50평, 2층 30평, 3층 30평 (심야보일러)
건물 2동 벽돌집 25평 방 4, 거실,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건물 3동 육각정
암자 또는 토굴로 사용할 경우 2층은 법당으로 사용가능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마당에는 흐르는 생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잔디와 소나무 조경이 잘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마당까지 레미콘 등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
011)509-0124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포교당 안내
● 부산 양정 포교당 연제구청 e-mart 아래 기사식당 전면
● 포교당 위치로는 최적지, 10년간 운영해옴
● 25평 지하철 5분거리 시내버스 왕복 주차장
● 가액 : 시설비 및 전세금포함 1700만원 월세 15만원
● 옥상 배란다 사용가능
011)550-4425/011)553-1006
처사님 보살님도 환영함
즉시법회가능(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사찰 안내
● 위치 : 남원시 소재
● 대지 : 120평(실사용 200평 이상)
● 법당 : 약 30평, 요사채 (스님전용방 3칸, 욕실 1칸, 신도방 3칸) 공양실 1동(공양주 방 1칸)
아담한 사찰(비구 · 비구니스님 적합함)
● 주차장 완비 ● 가액 : 9천 5백만원
016)850-8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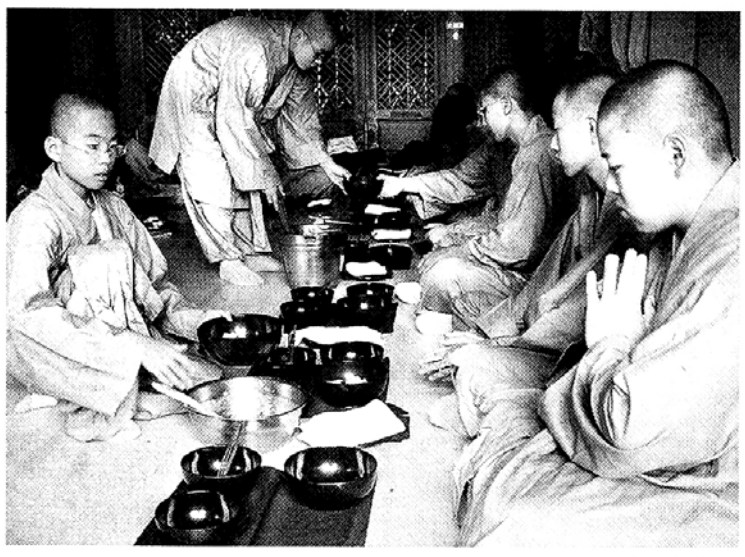
청소년 24명 28일간 해인사 백련암 단기출가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7월 23일 해인사 백련암, 적광전을 울리는 참회진언. 장궤합장한 채 참회진언을 외는 청소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스님 앞에서 삭발을 기다리고 있는 우람(경기 도장중 3)이를 힐끔 쳐다본다.

삭발에 앞서 불단에 촛불과 향을 사루고 수건과 세수대야를 준비한 후 백련암 원주 일등스님이 삭발의식을 설명할 때만 해도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엄숙함보다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스님 따라하며 참다운 나 찾기"



◇해인사 백련암에서 발우공양 중인 24명의 청소년 단기출가자들. 사진=박원구 기자

"발우공양·3천배로 절약·인내심 배워 귀가하면 게을렀던 생활방식 고칠것"

그러나 정작 우람이의 머리카락이 삭도에 밀려나가자 입으로만 외던 참회진언마저 잦아든다. "성불하세요"라는 합장 반배와 함께 시작된 삭발은 24명이 마칠 때까지 오랫동안 이어졌다. 머리카락이 말끔히 잘려나가자 아이들의 손은 자꾸 머리로 향한다.

해인사 백련암 청소년 단기출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27일동안 진행되는 단기출가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남학생 21명, 여학생 3명이 참가했다. 8년째 이어오고 있는 백련암 단기출가에서 삭발식은 오랜 전통. 부모, 학교, 친구 등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다짐, 못된 버릇을 잘라버리겠다는 서원을 담은 의식이기 때문이다.

삭발을 마친 24명은 심전 법사와 일등스님의 지도아래 4주 한달동안 '출가자'로 스님과 똑같은 생활을 해나간다. 묵언정진, 새벽예불, 발우공양, 매일 6백~1천배씩의 능엄주기도, 대중 울력, 선체조 등 어느것 하나 쉽지 않았다. 우람이는 "성당에 다니시는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발우공양, 삼천배를 통해서 평소 부족했던 인내심, 절약 등을 다시 배우고 있다"고 의젓하게 얘기한다. 제일 맏형인 기훈(인천 백석고 2)이도 "힘들지만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소중하다"며 씩 웃어 보였다.

3주가 지난 9일, 이제 웬만큼 힘든 일도 척척 해내는 단기 출가생들이지만 입을 모아 첫 날, 삼천배가 있던 날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참가한 것을 후회하며 부모님을 원망했고 몇몇은 백련암을 내려갔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살 빼려고' 등이 출가(?) 동기인 아이들로서는 당연한 반응. 그러나 삼천배가 끝나자 아이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다. '힘든 일을 해냈다'는 자신감이 솟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다. 혜원(서울 윤중 3)이도 "집에 돌아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등 게을렀던 내 생활을 고치겠다"며 부모님께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어느새 밤송이만큼 자라난 머리카락만큼 출가생들 마음의 세계도 쑤욱 자랐을까. 모두들 일주일 정도 남은 회향(18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고 입을 모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주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인내로 체득한 진정한 출가정신은 청소년들이 돌아간 일상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함천=천미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워저드 김희균

"불교는 앎 추구 과학·심리학 과학시대 영성 줄 유일 代案"

김용옥씨 동국대 강연

"불교는 바른 앎을 추구하는 과학이자 심리학이다. 때문에 무신론적인 과학시대에 영성(靈性)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동양철학의 대중화로 인기를 얻고 있는 도올 김용옥(前 고려대 철학과 교수)씨가 원시불교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김용옥씨는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가 10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주최한 '불교의 본래 모습-달라이라마를 만난 후'라는 제목의 대중강연에서 "불교는 과학이라는 인과세계의 신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면서, 기독교에서 불교로의 세계사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천여명의 불자 및 시민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뉴욕과 인도 등지를 오가며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나눈 대화를 통해, 달라이라마의 간결한 답변과 번뜩이는 지혜에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다고 소개했다.

"성하께서는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입니다."

김씨는 달라이라마와의 이같은 대화를 통해 "'붓다'란 '진정으로 안 사람'이란 어원처럼 불교가 연기(緣起)의 법칙을 철저히 통찰하는 과학"임을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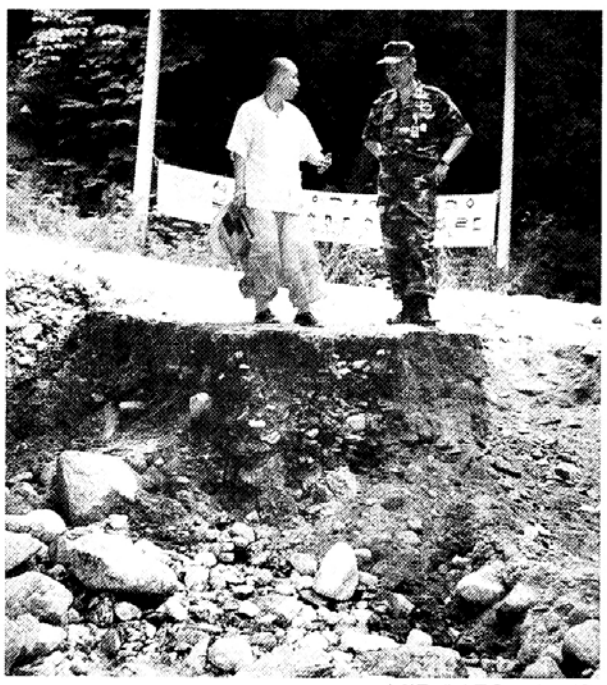


◇1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용옥씨가 열강하고 있다.

김씨는 '깨달음을 얻었는가'란 당찬 질문에 '공(空)과 자비를 통해 우주와 인생에 대해 조금 통찰을 얻었을 뿐'이라는 달라이라마의 겸손한 답변을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정혜 '3학'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한국 불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씨는 '계(戒)'를 바른 삶으로, '정(定)'을 어떤 사물에 집중하는 능력으로, '혜(慧)'를 세계에 대한 정확한 앎으로 각각 분석하고 한국불교가 선불교 지상주의에서 탈피, 일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은 〈달라이 라마와 도올의 만남-인도로 가는 길〉 통나무 발행, 전3권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의미도 있었다. 김재경 기자



수해 현등사 진입로 복구논의 ◇최근 내린 폭우로 일부 사찰들이 천정에서 물이 새고, 진입로가 유실되는 등 비 피해를 입었다. 사찰 진입로 2㎞ 구간이 유실된 경기도 가평의 현등사도 폭우로 길이 끊겨 신도들의 발길을 막고 있다. 현등사 주지 초격스님이 인근 부대장과 진입로 복구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가평=고영배기자

서울 궁동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조계종복지재단, 신임 관장에 설웅스님

조계종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 2일 서울 구로구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에 들어간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신임관장으로 속초 낙산사 주지 설웅 스님을 내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궁동종합복지관은 대지 482평, 건평 878평의 지하 2층 지상 3층 신축 건물로 수영장, 체력 단련실,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사회교육실 등 시설을 갖추고 가정 · 아동 · 노인 · 청소년 · 장애인 복지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02)817-8052 김철우 기자

사회복지법인 내원·범어사 2002년 시니어클럽 사업자로

보건복지부 선정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과 '범어사(이사장 성오)', 대구의 '불교사회복지회'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2년도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자에 당선됐다.

올해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7곳 가운데 부산의 경우 내원시니어클럽과 금정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곳 모두가 불교계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정도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다양성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50~60곳의 응모 사업자와의 경합끝에 불교계가 선정됨으로써 전국 18곳의 시니어클럽들이 노인 인구의 자활을 돕는 후견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내원시니어클럽의 경우 떡방앗간 사업단, 자판기 설치 사업단, 영농사업단, 상담자문사업단 등 8개 분야로 나눠 노인들의 자활을 돕게 된다. 금정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또한 복지팀, 자활사업팀, 지역사회팀으로 나눠 노인대학, 명상센터, 유기농사업단, 공동육아사업단, 교통봉사단,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자의 생각

법문 서비스



거의 모든 불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전 내용이나 스님의 법문 등을 제공받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 결과 총 75명의 응답자 가운데 72명(97.3%)이 경전 내용이나 스님의 법문 등을 제공받기 원한다고 응답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명(2.7%)에 불과했다.

경전내용 등 제공받기 원해 97.3%

만약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35명(46.7%)이 이메일, 19명(25.3%)이 우편물, 13명(17.3%)이 소형책자, 7명(9.3%)이 핸드폰문자메시지, 1명(1.3%)이 기타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두식 기자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生)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① 타인최면유도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 ③ 원격최면 ④ 전생퇴행최면 ⑤ 파동(波動)요법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문 의 처 : 051)806-8500, 051)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법운 선생님 약력
■ 동래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97년 PSB 아침 톡톡뉴스 출연 (운명학)
■ '98년 PSB 출발새아침 출연 (관상학)
■ 대한 초능력협회 회원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세계아미프 기공협회 회장
■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동 방 최 면 전 생 연 구 소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지혜와 자비의 화신들

◇물걸리 절터 보호각속 대좌 하단에 새겨져 있는 다양한 모습의 보살상들.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보호각 안에 보존된 불상들과 불대좌

산골 강마을 서정 듬뿍 '성보 자연박물관'

홍천군 물걸리 절터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통일신라 홍양사 터 추정…寺名·내력 불명
삼층석탑만 제자리, 대승사가 절터 관리



◇물걸리 절터는 발견된 문화재의 규모나 주변 산세로 보아 당대에는 홍천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대찰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은 사명도 불분명한 채 삼층석탑이 외롭게 절터를 지키고 있다.



◇절의 규모를 가늠케 하는 큰 대좌. 깨져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놓았다.

뫼는 높고 골은 깊어 골 안에 옛 절터가 있는지 아는 이 드물다. 골짜기를 흘러내린 물길은 마을을 에돌아 가축을 살찌우고, 인심을 풍요케 하니 부지런한 드렁칡넝쿨은 이 산 저 산을 타고 넘어 천지간 경계를 허문다. 고요만 덧쌓인 불대좌 앞에 살포시 앉은 밀잠자리는 누구의 후신인가. 척양척왜(斥洋斥倭)를 외치던 선열의 숨결은 길섶마다 붉은 산딸기로 익어 들짐승들처럼 입맛 거친 동심들을 유혹한다.

태백산맥 서사면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악지방 홍천. 홍천은 횡성과 함께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동북동-서남서 전역에 1천m 이상의 장중한 산봉우리들이 어깨동무를 하여 승막하고 외진 산골 오지쯤으로 보이나 골안으로 들어서면 듬직한 산그늘 사이로 수심 깊은 강물이 흐른다. 지금은 중앙고속도로까지 뚫려 험준한 산의 고도를 낮추고, 마을의 지형을 바꾸어 강심(江心)에 노니는 각시붕어 만큼이나 걸출한 인물들이 이 고을에서 태어났다.

얼마 전 월드컵대회에서 4강 신화를 이룩한 태극전사 가운데 해맑은 동안(童顔)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초롱이 이영표 선수도 이 곳 홍천 출신이고, 작가 전상국씨도 우리가 찾아가는 내촌면 물걸리 사람이다. 그런인가, 물걸리 동창마을은 동학후명당시 북접(北接)의 주역이었던 농민군 800여명이 이곳을 무대로 개벽을 꿈꾸다가 못다한 한을 후세에 전했고, 3·1만세운동시에는 낫과 호미로 무장한 광별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주독립을 외치던 곳이다. 태백산맥을 넘은 운무의 정기가 잡중된, 예사롭지 않은 풍수를 지닌 마을이다.

인제 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을 지나 북한강 청평호와 몸을 섞기 위해 150km를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홍천강의 옛 이름은 화양강(華陽江). 이 유장한 물길이 있었기에 예로부터 홍천강은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수운(水運)이었으며, 그 탓에 내촌면에는 거대한 나루터와 나라의 곡물보관 창고인 동창(東倉)이 있어서 횡성과 더불어 도내에서 가장 물물교환이 번성했던 곳이다.

모름지기 제대로 된 답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옻기듯 유적지 한 두 곳만 훑쩍 둘러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내력을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유적지 탐사는 관광이 아니라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여행이고 그 시대 민중들의 삶과 정신을 만나는 전생체험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홍천 일원 역사 이름없는 옛 절터 하나만을 불쑥 찾는 것은 쑥스럽기만 하고 그 절터에 스민 역사의 숨결과 토질을 천천히 살필 필요가 있다.

횡성군 둔내면에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있고, 홍천군 북방면에는 5~10만년 전 것으로 보이는 중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부터 북진의 발판으로 삼았기에 서라벌의 불심을 이 곳에 옮겨 희망리 삼층석탑(보물 제79호), 괘석리 4사자삼층석탑(보물 제540호), 희망리 당간지주(보물 제80호)등 불교 유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온 이곳 물걸리에 석조여래조상(보물 제54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제 542호), 불대좌(보물 제543호) 불대좌 및 광배(보물 제 544호), 물걸리 삼층석탑(보물 제 545호) 등 '성보 자연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홍천 지역의 폐사지를 일일이 탐험하기에는 알려진것만을 찾기에도 3~4일은 족할 것이나 홍천 지역 대표적 폐사지이며 한 눈에 사지 탐험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물걸리 절터를 만난다.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기념물 47호로 지정된 물걸리 절터는 통일시대 시대의 홍양사(洪陽寺)로 추정될뿐 명문이 출토된 바 없어 정확한 사명(寺名)도, 사원의 내력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따서 "홍천 물걸리 절터"라 부르는 것이다. 이름 모를 절터 치고는 그 발굴된 유적들의 규모나 수준면에서 더할수 없는 애증을 불러 일으키기에 물걸리 절터의 한 없는 매력을 느낀다. 물걸리 절터야 말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나 깊이 있고 소박한 강원도의 인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물걸리 절터는 발견된 문화재의 규모나 주변 산세로 보아 당대에는 홍천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대찰로 보여진다. 1967년 민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과 1971년 발굴조사에 나온 5점의 보물급 유적들은 불교미술의 전성기를 이뤘던 통일신라 것 답게 그 규모나 기법면에서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다. 특히 전각으로 옮겨진 4점의 성보들은 하나같이 크기의 규모가 압도적일 뿐 아니라 그 조각솜씨 또한 빼어나 산중에서 이런 장중한 보물들을 만나는데 대해 답사 여행의 포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큼직한 봉나무가 유달리 많은 옛 절터. 망가진 뒤에도 절 살림은 남부럽지가 않아 보인다. 절 터 옆, 몇줄기 모를 꽃아놓은 무논은 옛날에는 연꽃이 벙글고 수월관음(水月觀音)이 달빛 수의를 끌던 연못이었을성 싶고, 암암이 청포도 익어가는 마을 뒷산은 옛스님네들 108염주 목에 두르고 탁발을 나가는 뒷모습인 듯 싶다. 사지와 사잇길 하나로 경계를 지은 민가 외양간에는 큰 눈을 슴벅이는 농우(農牛)가 빈 집을 지키며 절 터의 추억을 되새김질하고 있다.

이 절터에서 유일하게 본래의 절터에서 원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삼층석탑이다. 삼층석탑은 상태가 좋지 않아 1975년 보수를 했는데, 탑재가 화강석임에도 탑 전체가 풍상에 그을린 듯 검푸른 이끼가 올라 있어 오석(烏石)인가 착각할 정도이다. 삼층석탑은 3층의 굽받침 숫자가 4개로 감소하는 것과 층층기단의 탱주가 1개로 감소되고 지붕돌에 반전이 있어 아마도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각 안에 있는 4점의 유물 역시 석불과 대좌들이 같은 조각 수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인 9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보호각 안에는 오른쪽부터 불대좌 및 광배,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석조여래좌상, 불대좌가 차례로 안치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을 비바람에 노출되었듯 얼굴부분의 윤곽도 나발의 머리칼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마모가 심하다. 그러나 아직도 살결이 두툼하고 결가부좌가 당당한 석불들의 표정을 요모조모 뜯어보면 희미하게나마 도리천을 가르는 가르빙가의 날개짓을 느낄 수가 있다. 누구일까, 시계꽃 한 줌을 뜯어 비로자나불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꽃은 이미 시들었으나 그 향기는 전각 안에 은근히 배어 시들 줄을 모른다.

홍천 물걸리 절터는 현재 대승사(大乘寺)라는 작은 절이 야산 옆에 세워져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름도 밝힐 수 없거니와 더 이상 사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듯 사지 관리를 전담하는 사원이 조성되어 굽어진 황화도 밝히고 유물도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리 방법인 것 같다.

얼마 전 다녀온 여주 고달사 터의 원감국사부도(국보 제4호)가 도굴범들에 의해 보개가 훼손되고 탑신도 기울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소식이다. 마침 성원스님(강화 선원사 주지)이 국회에 폐사지 관리대책 입법을 청원 중이라는데, 조속히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국의 유수한 폐사지 성보들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얼과 역사가 깃든 문화재들을 동네 이장이나 관계부처 지방공무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는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경기도 양주 회암사 터 편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창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